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

- 분야별 국내외 ESG 사례 -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
- 분야별 국내외 ESG 사례 -

전국경제인연합회·김앤장

발간사



김 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
(삼양홀딩스 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전세계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를 꼽자면
단연 환경·사회·거버넌스를 뜻하는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경영이란 것이 늘 그러하듯
ESG 경영 역시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추구하는 바, 경영철학, 방침, 업종, 환경 모든 것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경영전략이나 ESG 경영의 모습은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ESG 경영의 모델은 무엇일까.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을 거듭하며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과 ESG 경영

"큰 장사에서는 마땅히 걸어야 할 상인의 도가 있다.
이를 깨닫는 것은 저마다 절차탁마하기에 달렸다.
부닥치는 시비와 크고 작은 흥망성쇠는 상도에 따라서 천변만화한다.
그 길을 올바르게 파악하면 사업은 순조로울 것이고,
상도를 잃으면 그의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조선의 거상 임상옥의 말입니다.

정도경영은 많은 선배 기업인들 뿐 아니라 저의 오랜 경영철학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
정도경영과 ESG 경영은 그 본질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ESG는 글로벌 현상

ESG 경영 열풍은 국내적 현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기업들의 의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세계질서를 이끌고 있는 강대국,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글로벌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ESG 이슈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조망해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되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MSCI 같은 유수의 글로벌 ESG 평가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립한 프레임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다

일본의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公器)다.”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 안팎의 인적자원을 길러냅니다.

구성원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수익을 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해법을 찾습니다.

사회 문제를 고민해 미래의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우리 기업에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갖춥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ESG라는 새로운 문법일 것입니다.

모쪼록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이

우리 기업들이 새 문법에 적응하고,

일반 독자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례집 제작에 힘써주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전경련 사무국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K-ESG 얼라이언스 의장

삼양홀딩스 회장 김 윤

목 차

▣ 들어가며	7
▣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사례	
<환경편>	
* ESG ‘환경’ 이슈 글로벌 동향	
I. 기후 변화	12
1. 탄소배출	12
2. 제품 탄소발자국	19
3. 자금 조달의 환경 변화	24
4. 기후 변화 취약성	26
II. 천연 자원	27
1. 물 부족	27
2. 원자재 조달	31
3. 생물다양성 및 토지 사용	33
III. 오염 및 폐기물	35
1. 유해물질 배출 및 폐기물	35
2. 포장물질과 폐기물	38
3. 전자적 폐기물	44
IV. 환경적 기회	47
1. 청정 기술개발	47
2. 재생 에너지	52
3. 친환경 빌딩	55
<사회편>	
* ESG ‘사회’ 이슈 글로벌 동향	
I. 인적자본	66
1. 인적자원 관리	66
2. 인적자원개발	71
3. 건강 및 안전	75
4. 협력사 근로자 정책	78

II. 제품책임	81
1. 제품안전 및 품질 관리	81
2. 화학적 안전성	82
3. 금융상품의 안정성	83
4.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84
5. 책임 투자	86
6. 건강 및 인구학적 리스크	87
III. 이해관계자 관계	88
1. 분쟁광물	88
2. 지역사회 관계	92
IV. 사회적 기회	93
1. 통신망 접근성	93
2. 금융 접근성	95
3. 의료 접근성	96
4. 영양 및 보건 기회	98

〈거버넌스편〉

I. 지배구조	102
1. 이사회 다양성	106
2. 임원 보상	116
II. 기업행동	117
1. 기업윤리	117
2. 반경쟁 관행	120
3. 세금 투명성	122
4. 부패(및 불안정성)	123
5.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125

들어가며

본 사례집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의 ESG 평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구성했다. MSCI는 1999년부터 ESG 지수 평가를 해온 글로벌 대표 ESG 평가 기관으로서, MSCI의 ESG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운용자금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15조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계 운용규모 1위 블랙록 자산운용 또한 MSCI ESG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ETF를 운용한다. 우리나라 ETF들도 다수 MSCI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MSCI ESG 지수는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MSCI ESG 평가 방법¹⁾

MSCI는 매년 전세계의 8,50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37개의 핵심 ESG 이슈 중 해당 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ESG 이슈와 관련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MSCI ESG 평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평가대상 회사와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ESG 리스크와 기회는 무엇인가. 둘째, 대상 회사가 이러한 중요한 리스크와 기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셋째, 대상 회사가 이러한 중요 리스크와 기회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넷째, 동종 산업에 속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대상 회사의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1) 평가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분야에서의 주요 ESG 이슈 선별 및 비중 설정

MSCI 평가는 평가대상 기업이 37개의 핵심 ESG 이슈(MSCI ESG Key Issue) 모두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선별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에 필요한 화학성분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므로 중대한 리스크(material risk)다. 또한 클린 테크놀로지(clean technology)는 LED 조명산업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중요한 기회(material opportunit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ESG 이슈가 정해지면, 이러한 개별 주요 이슈가 ESG평가에서 어느정도 비중(weight)을 가지게 될지를 설정한다. 개별 ESG 이슈는 중요도에 따라 각각 5~30%정도의 비중을 가지게 된다. 개별 이슈가 해당 산업분야에서 환경 또는 사회(E or S)에 미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1) MSCI ESG RATINGS METHODOLOGY Executive Summary , MSCI ESG Research, November 2020

영향력의 정도와 이러한 영향력이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현실화 되기까지 예상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슈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지배구조(G) 관련 이슈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중요하다고 보아 공통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며 비중도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다.

[MSCI ESG Key Issue]

3 Pillars	10 Themes	35 ESG Key Issues	
Environment	Climate Change	Carbon Emissions Product Carbon Footprint	Financing Environmental Impac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Natural Capital	Water Stress Biodiversity & Land Use	Raw Material Sourcing
	Pollution & Waste	Toxic Emissions & Waste Packaging Material & Waste	Electronic Waste
	Environmental Opportunities	Opportunities in Clean Tech Opportunities in Green Building	Opportunities in Renewable Energy
Social	Human Capital	Labor Management Health & Safety	Human Capital Development Supply Chain Labor Standards
	Product Liability	Product Safety & Quality Chemical Safety Financial Product Safety	Privacy & Data Security Responsible Investment Health & Demographic Risk
	Stakeholder Opposition	Controversial Sourcing Community Relations	
	Social Opportunities	Access to Communications Access to Finance	Access to Health Care Opportunities in Nutrition & Health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Ownership & Control Board	Pay Accounting
	Corporate Behavior	Business Ethics Tax Transparency	

2) 평가대상 회사의 ESG 리스크 노출(exposure)과 ‘리스크 관리(management) 평가

해당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ESG 이슈가 선별되고 이슈별 비중이 설정되면, 개별 회사가 이러한 주요 ESG이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ESG이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별 회사가 주요 ESG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떠한 경영전략을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SCI ESG Rating 모델은 바로 이러한 두 측면, 즉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노출(Risk exposure)’과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를 평가한다.

개별 산업 전체 차원에서 주요 ESG이슈가 확정되더라도 개별 회사가 이러한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다양하다. 회사의 주요 산출물,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상 회사의 위험 노출(Risk exposure)수준을 0~10점 범위에서 평가하는데 0점은 위험 노출이 없는 경우이고 10점은 매우 높은 경우를 나타낸다.

이렇게 개별 회사가 직면한 위험 노출 수준을 평가한 다음에는 회사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즉 대상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평가한다.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0점~10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데 0점은 리스크 관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고 10점은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다.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리스크 노출 수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높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은 여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Electric Utilities)은 전형적으로 물 의존성(water-dependent)이 큰 사업인데 개별 회사가 공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물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전기 사업을 하는 회사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 물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즉 회사가 직면한 위험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Risk Exposure)와 위험 관리 평가(Risk Management)는 상관성을 가지는데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와 동일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량의 탄소 및 유독성 배출을 초래하는 기존의 발전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회사 A와 송전 및 배전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력회사 B의 경우는 동일 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다르므로 B사가 A사 수준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A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MSCI ESG 평가는 기본적으로 ESG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노출 수준과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 수준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3년내에 ESG 관련 논란 (Controversies)이 발생한 경우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시 점수를 차감하게 된다. ESG 이슈 관련 논란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ESG 리스크 관리 역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쳐 AAA 나 AA 등급을 받은 회사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ESG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하는 회사라는 의미의 "leader"로 분류되며, A, BBB, BB 등급을 받은 회사는 "Average"로 분류된다. B 나CCC 등급을 받은 회사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ESG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laggard" 로 분류된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

환경편

ESG ‘환경’ 이슈 글로벌 동향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에 따르면, 2년 전만해도 전세계 25%의 국가들만 탈탄소를 선언하였으나, 현재는 약 75%로 증가하였다. 탈탄소를 이룬다는 것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기업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이러한 대전환은 과거에 없었던 네 가지 요소에 기인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환경목표다.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이 2도씨를 넘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EU는 연간 1,750~2,9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가능한 투자촉진을 위해 탄소감축, 기후 적응, 물, 폐기물, 오염방지, 생태계 등 6가지 세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상세한 투자대상구분 및 친환경기준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EU의 산업 및 투자 활동이 친환경기준에 어느정도 부합하는지를 의무 공개하는 규정도 작년 7월에 발효되었다.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는 기술가격의 하락이다. 6월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1년간(2010~2020) 태양광발전기의 가격은 85% 하락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도 SHS(Solar Home System)보급사는 태양광발전기, 배터리, LED, 휴대폰충전기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전봇대가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는 태양광발전기 가격의 큰 하락이 없었다면 구현되기 힘든 모델이다. 이 회사는 세계 인구의 약 1/5의 잠재 수요를 바탕으로 매년 두 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ICT 기술과의 융합으로 발전량 예측, 사용데이터 분석, 수요자원 중계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셋째, 환경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이다. 아마존 직원들은 회사의 기후변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회사의 적극적 투자약속을 이끌어 냈고, 구글도 직원 반대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관련 회사에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기업은 소비활동으로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앱 Hopper는 호텔, 항공권 예약 시 소비자에게 탄소 상쇄배출권을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이 큰 투자자의 구체적 요구다. 최근 투자자(특히 주주)는 ESG를 강조하는데,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다. 투자자들은 특히 환경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나 연례 서한발송과

같은 상시 소통을 통해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투자철회 등으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엑슨모빌 주주총회에서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Engine No. 1은 청정기술, 재생연료 및 신사업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하였고, 그 중 3명이 선임되었다. 2021년 주요 글로벌기업들의 환경 관련 주주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목표 및 성과를 공개하라는 요구와 환경관련 리스크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환경관련 주주제안 중 3/4이 기후관련 제안이고 2/3가 단순 공개요구가 아닌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과, 기후관련 주주제안 지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통과되는 주주제안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술한 4가지 요소로 구성된 대전환을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종합적 증거가 Race to Zero다. UN의 Race to Zero는 기업들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자발적으로 선언하여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2021년 7월 말 기준 약 3067개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에는 ESG 관련 투자자들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 자산 54조달러를 관리하는 575개 투자사들로 구성된 Climate Action 100+라는 이니셔티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160여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따른 정보 공시, 그리고 이사회에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요구한다. 투자자에게는 수익이 가장 중요한데 10년간(2013~2020) ESG를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MSCI펀드와 일반적인 회사에 투자하는 MSCI 펀드를 비교 시 ESG를 잘하는 회사에 투자한 펀드가 수익성이 좋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작년 6월 기준 40.5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글로벌 운용자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SG 채권의 국내기관 발행 추이를 보면, 2018년 1조 2500억원에서 2021년 7월 기준 133조원 가량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ESG 투자의 경험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평가 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내 ESG 투자는 이제 시작하는 사안으로 보고 여건을 성숙시키며 경험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 ESG의 역사가 이미 10년이나 된 미국 및 유럽 기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주주인 만큼 ESG를 장기적 필수요소로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 마침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가 지난 1월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 다수의 투자대상기업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어떻게 기후관련 기회와 위기를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이사회에서 관리할지 등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우리 기업의 고민도 시작됐다. ESG 관련 요구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ESG 사안을 개척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I. 기후 변화(Climate Change)

1. 탄소배출(Carbon Emissions)

기업은 사업운영의 탄소 집약도와 기후 관련 위험·기회 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 (LG전자) 중장기 탄소중립목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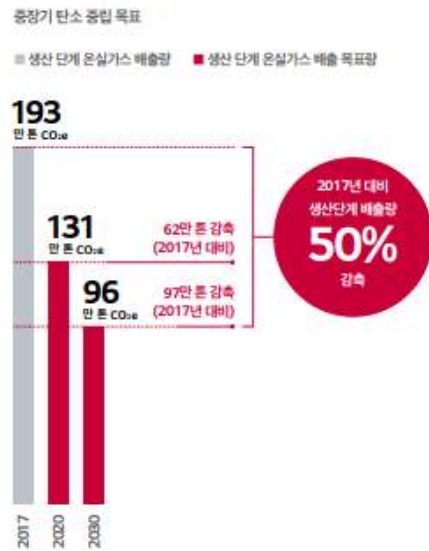
〈회사 개요〉 LG전자

- ▶ (업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8,435,323 백만 원 (2020.12.31. 기준)
 근로자 수: 41,381명
 해외 계열회사 수: 119개

- ※ MSCI ESG 등급 A
- ※ KCGS ESG 환경 A

〈추진 목표〉

- ▶ 2030년까지 생산 단계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
-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확대하여 외부에서의 탄소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LG전자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하기 위하여 생산 공정에서 에너지 고효율 설비와 탄소 배출량 감축 장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에 기술·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성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적극 참여해 탄소상쇄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 중이다.

〈 탄소경영 시스템 〉	〈 전략적 탄소경영 활동 〉
<p>1. 최고의사결정 협의체 운영 전사 안전환경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점검하고 있으며, 탄소 감축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 의사결정 수행</p> <p>2. 리스크 관리 및 기회 전환 1) 글로벌 사업장 에너지경영진단 실시 2) 배출권거래제 참여. 정부정책 변경 리스크 검토 3) 저개발국, 중소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 지원 (CDM사업 확대, 국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p> <p>3. 커뮤니케이션 탄소경영정보공개 프로그램(CDP)에 참여해 탄소 경영활동을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공개 * '19년 CDP Climate Change 평가 최우수 등급(Leadership A) 획득. CDP Korea Awards 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선정</p>	<p>▶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도입 및 인증 ▶ 탄소펀드(Carbon Fund) 조성 ▶ 탄소비용(Carbon Pricing) 책정으로 환경부담을 재무가치로 측정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데이터로 활용 ▶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 도입(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 대상 기업으로 동법 제44조에 따라 한국 전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제3자 검증 후 배출량 명세서를 정부에 적기 제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글로벌 생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완료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p>

■ (포스코) 탄소중립 LNG 도입 및 기후행동보고서 발간

<p>〈 회사 개요 〉 포스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6,509,920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17,641 해외 계열회사 수: 136개 <p>※ KCGS ESG 등급 환경 A</p>

포스코는 독일 가스 공급회사인 RWE社로부터 탄소중립 LNG 6.4만 톤을 도입했다. 이는 생산·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약 3.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킨 규모다. 또 3.5만 톤은 30년생 소나무 53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으며 연간 승용차 15천여 대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과 같다.

※ 탄소중립 LNG: 천연가스를 개발·생산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기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림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호 지역 보전활동 등을 통해 얻은 탄소크레딧(탄소감축분)으로 상쇄시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 그린 가스

LNG는 에너지원으로 활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적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10%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석탄을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꼽힌다. 다만, LNG도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는 탄소가 발생한다. 탄소중립 LNG는 탄소 발생 상쇄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거래 실적이 총 9카고에 불과했다. 한편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단계 실행방안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경제적 저탄소 연원료로의 대체를 추진하고 있다.



▲ 포스코는 '탄소중립 LNG'를 도입했다. 사진은 광양제철소 LNG 터미널에서 RWE社로부터 도입한 '탄소중립 LNG'가 하역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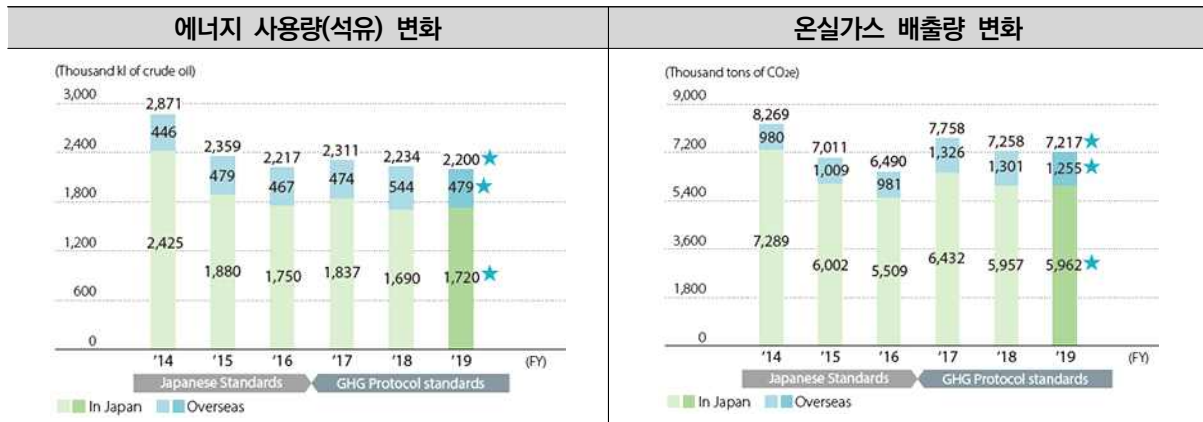
한편 포스코는 기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제조업 최초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이번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TCFD 권고안을 반영한 기후행동보고서(POSCO's Dialogue for Climate Action)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 20%, 2040년 50% 감축이라는 중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TCFD 권고안에서 강조하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1단계로 에너지효율향상과 경제적 저탄소 연원료로의 대체를 추진하고, 2단계에는 스크랩 활용 고도화와 CCUS 적용, 3단계에서는 기존 FINEX 기반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제철 공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스미토모화학)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회사 개요> 스미토모화학

- ▶ (업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약 24조 (2조 2869억엔, 2021.03 기준)
근로자수: 34,743명
- ※ MSCI ESG 등급 AAA / 탄소배출(관리) Leader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의 ESG 평가(20년말)에서 AAA를 받은 일본 우수기업 중 유일하게 Carbon Emissions 항목에서 우수(Leader) 등급을 받았다. 스미토모화학은 그룹사 ESG Report 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그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중간 단계로 2035년까지 석탄발전 20%, 가스발전 50%, 재생에너지 30% 비중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IPP 사업의 경우 2035년까지 CO2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고 2019년 대비 2040년 모든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공기관과의 탄소 중립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 전체의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것 약속한 바 있다. 정책적으로는 재생 에너지, 에너지 활용 효율화 및 사회 전체의 CO2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연료 전환을 촉진(수소 기술 개발 등)하고 있다.



▲ 2014년부터의 석유사용량, 온실가스 감소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표로 정리

■ (파나소닉) 환경비전 2050 발표

〈회사 개요〉 파나소닉

- ▶ (업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90,697.73억 원 (2021.03 기준)
근로자 수: 259,385명(2020년 3월 기준)
- ※ MSCI ESG 등급 AA / 전자폐기물(관리), 청정기술개발 Leader

파나소닉은 환경비전 2050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조성·확대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해 해외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제로’ 공장조성을 추진 중이며,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도입과 재생가능에너지 파생 전력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본, 벨기에, 브라질, 코스타리카에 ‘제로 CO2’ 공장을 도입했으며, 2050년까지 글로벌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O2 제로 플랜트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절약 이니셔티브로 2018 회계연도까지 모든 부서에 LED 조명이 도입됐다. 또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와 같은 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고 있다. 파나소닉 그룹의 가전제품 재활용 공장인 파나소닉 에코 테크 놀로지센터(PETEC)와 배터리 공장인 파나소닉 에너지 벨기에(PECME)는 일본과 유럽의 두 공장에서 최초의 CO2 제로 플랜트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다. 두 발전소 모두 태양광 발전 시스템, 풍력 발전 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한다. 이밖에 화석연료에서 파생된 CO2의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크레딧을 활용하는 등 이니셔티브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약 5,000톤으로 추정된다.

■ (애플) 캘리포니아 플랫(California Flats) 건설

〈회사 개요〉 애플

- ▶ (업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29,320.16 억 원 (2021.03 기준)
근로자 수: 147,000명
해외 계열회사 수: 27개국 지사
- ※ MSCI ESG 등급 청정기술개발 Leader
- ▶ (참고) 21.4월 국제보존협회, 골드만삭스와 함께 탄소 제거 이니셔티브 ‘복원기금’ 출범
복원기금은 2억 달러 규모,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연간 100만톤씩 제거 목표
2030년까지 애플의 공급망 및 제품의 100% 탄소 중립화 달성 약속

애플은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 및 제품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 중립화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수립했다. 애플의 탄소배출저감 10개년 계획은 ▲저탄소 제품 디자인 ▲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공정 및 소재 혁신 ▲탄소 제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애플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플랫(California Flats)을 건설 중이다. 이는 2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로 하루 동안 7000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산타클라라 밸리와 애플파크의 소규모 송전망을 통해 분산된 전력 저장 시설(ESS)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저탄소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성 촉진 및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연간 1500만 미터톤(metric ton) 이상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있다.

또 애플은 전세계 협력업체와 함께 '탄소 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세계 110개 기업(한국기업 포함)들이 향후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는 연간 340만 대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 (NOTE)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 탄소공개프로젝트: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인 'FT500 글로벌 인덱스' 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는 기구(본사 영국). CDP 한국위원회는 시총 20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전략, 탄소 경영 전략을 조사하고 있다. 아래는 최근 3년간 CDP 하늬위원회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는 한국기업 약 64개사의 현황이다.

■ <NOTE>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보고

* TCFD란?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자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주요내용>

① 지배구조(Governance)
- 기후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 관리·감독 내용
-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경영진의 역할
② 전략(Strategy)
- 단기·중기·장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 기후 리스크와 기회가 영업·전략·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 평균기온 2°C 이내 상승 시나리오 등 기후 시나리오가 영업·전략·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③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기후 리스크의 식별·평가·관리 절차
- 기후 리스크의 식별·평가·관리의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
④ 지표 및 목표치(Metric and Targets)
-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관련 리스크
-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치와 성과

2020년 기준 국내 20개 사가 TCFD 양식에 따라 기후관련정보를 공개(지속가능보고서 또는 별도보고서 형식) 중이다. 공개 회사는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네이버, 신한금융그룹, 코웨이, KB금융그룹,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가스, 하나금융그룹, DGB금융그룹, 삼성화재, LG화학, KT, LG전자, 삼성물산,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20개 사다. 보고 양식은 △지배구조(2): 이사회 감독, 경영진의 역할, △전략(3): 위험과 기회, 사업·전략·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 분석', △위험관리(3): 위험식별 및 평가, 위험관리, 리스크 통합관리, △지표와 감축목표(3):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및 성과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 항목 가운데 하나는 시나리오 분석이다. 세계적으로도 체계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드문 편이며, 아래는 유니레버의 시나리오 분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시나리오1. 2100년까지 2°C 증가의 잠재적 임팩트(Transition impact)		
주요동인(Scenario drivers)	2030 잠재적 재무영향(효과) * 리스크 경감조치가 없다는 가정	
탄소가격에 의한 비용(cost) 증가	턴오버 비용	중대하지 않음
	지출(expenditure)	8억 유로 증가
산림벌목 넷 제로, 지속가능농업 전환에 따른 원자재 비용 증가	턴오버 비용	중대하지 않음
	지출(expenditure)	9억 유로 증가
시나리오1. 2100년까지 4°C 증가의 잠재적 임팩트(Physical impact)		
주요동인(Scenario drivers)	2030 잠재적 재무영향(효과) * 리스크 경감조치가 없다는 가정	
만성·급성 물 부족으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 및 원재료 가격 상승	턴오버 비용	중대하지 않음
	지출(expenditure)	27억 유로 감소
폭풍·홍수 등 빈도 증가에 따른 제조·유통망 파괴(disruption) 증가	턴오버 비용	4억 유로
	지출(expenditure)	중대하지 않음
기온 상승 및 극단적 기상상황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GDP 성장 및 매출액 수준 감소)	턴오버 비용	21억 유로 감소
	지출(expenditure)	중대하지 않음

2.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기업은 제품의 탄소 집약도와 공급망,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 받는다.

■ (삼성전자) 탄소발자국 획득

<회사 개요> 삼성전자

- ▶ (업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66,311,191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103,685명
 해외 계열사 수: 80개
- ※ MSCI ESG 등급 A / 청정기술개발, 전자폐기물(관리) Leader

탄소 저감을 위해 제품 생산부터 운송 등 전 과정에서 포장재를 줄이고, 재질을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갤럭시 S21은 기존 제품 대비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 저감 인증(Reducing CO2)'을 획득했다.



▲ 사진: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

반도체 분야에서 D램 4종, SSD 3종, e스토리지 2종 등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 9개가 '제품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인증을 받았다. 특히, 스마트폰용 메모리 512GB eUFS 3.1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탄소 저감 인증'을 취득했다. 한편 카본 트러스트 인증 제품 중 포터블 SSD T7 터치는 반도체 제품 최초로 한국 환경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포장재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펄프 소재의 포장재를 개발해 포터블 SSD T7 터치에 적용했다. 또 공정가스 처리 효율 개선과 설비 운영 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연평균 탄소 배출을 약 8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화솔루션 · 한화테크윈) 탄소발자국 인증

〈회사 개요〉 한화솔루션

- ▶ (업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717,317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5,607명
 해외 계열회사 수: 9개
- ※ MSCI ESG 등급 탄소배출, 유독물질 배출 및 폐기물, 청정기술개발 Leader

〈회사 개요〉 한화테크윈

- ▶ (업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83,877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802명
 해외 계열회사 수: 5개

한화솔루션은 2013년 프랑스 탄소발자국 제도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탄소인증을 통해 획득한 'CFP Value'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 등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또 국내 태양광 모듈 제품에 탄소인증제('20.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도입을 추진 중이다. 탄소인증 제란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 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₂ · kg)해서 CF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한화테크윈은 네트워크 카메라 4종(XNB-6000, XND/O-6080R, XNP-6370RH)에 대해 온실가스 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아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 사진: 한화테크윈 홈페이지

■ (풀무원) 국산 콩두부 10종 탄소발자국 인증

<회사 개요> 풀무원

- ▶ (업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3,112억 원 (2020.12 기준)
근로자 수: 686명

※ KCGS ESG 등급 A+ / 환경 A / 사회 A+ / 지배구조 A+ (017810)

풀무원은 2020년 국산콩두부 10종이 영국 친환경 인증기관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인증을 획득했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제조 전 단계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총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수여하는 인증이다. 이에 맞춰 풀무원은 제품 제조 전 단계와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3R 원칙’ (Reduce, Recycle, Remove)을 적용해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도입, 화학물질이 남지 않는 수성잉크 사용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제품 제조 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했다. 풀무원은 두부공장, 김치공장, 물류센터 등 전국 9개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집열 설비를 구축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생산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풀무원은 두부 공장의 생산 부산물인 ‘비지’를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선순환을 하고 있다.



▲ 사진: 풀무원 공식블로그

■ (NOTE)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으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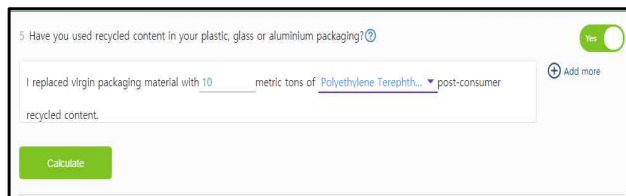
- ▶ 카본트러스트: 영국 정부가 2001년 설립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인증 비영리 기관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수여.
- ▶ ‘탄소발자국’ 인증: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목적으로 2007년 설립한 비영리기관 ‘카본트러스트 (Carbon Trust)’ 사가 처음 발급한 인증서.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Product Life Cycle)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후 국제심사기준 측정표준(PAS 2050)에 의해 심사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 것에서 시작. 탄소의 발생 자취를 밝히는다는 의미에서 발자국 모양을 쓰면서 ‘탄소발자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200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어 국내에는 2009년부터 ‘탄소성적표지제’라는 이름으로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환경부 총괄하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고 있음

■ (월마트, 미국/소매유통업) Project Gigaton

〈회사 개요〉 월마트

- ▶ (업종) 다국적 소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422,408.39억 원 (2021.1.31. 기준)
근로자 수: 2,200,000명
- ※ MSCI ESG 등급 제품 탄소발자국(저감 등) Leader

월마트는 2030년까지 월마트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10억 톤(1기가 톤) 감축을 목표로하는 협력사 지원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기가톤(Project Gigaton)’을 2017년에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23%인 2억 3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미국, 인도, 중국 등 50개국에서 3169개의 협력사가 참여하고 있다. 월마트는 협력사와 함께 구체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기존 사업과의 적합성(relevant), 감축 목표 시기(time limited)라는 ‘스마트 골(SMART goal)’을 기준으로 협력사가 감축 목표치를 정하도록 한다. 협력사는 월마트가 개발한 ‘프로젝트 기가톤 계산기(Project Gigaton Calculators)’를 활용하여 감축 가능한 탄소배출량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협력사가 정식으로 프로젝트 기가톤에 가입할 경우 월마트에서 매년 감축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협력사들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덕분에 자체 탄소 배출 측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작은 기업들로 프로젝트 기가톤에 참여할 수 있다. 월마트는 또한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과 같은 NGO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사들이 6개 분야(에너지, 농업, 폐기물, 제품, 삼림, 패키지)에서 개선을 거두기 위한 실행을 돕는다. 주로 개선 방안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력사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가톤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제과업체 몬텔리즈는 월마트와 함께 2020년 초까지 포장재 약 6만5천 파운드(약 3만kg)를 줄였고, 2025년까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을 사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선반 준비 포장(shelf-ready packaging)’ 방식을 통해 몬텔리즈의 포장과 월마트의 폐기물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줄였다.



▲ 프로젝트 기가톤 계산기 : 협력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조치와 관련된 40개의 항목에 값을 입력하면 감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 추정치 확인 가능



▲ 몬텔리즈의 캐드베리 초콜릿 제품의 선반 준비 포장

■ (아마존, 미국/유통업) 저탄소 운송수단

<회사 개요> 아마존

- ▶ (업종) 소매 소비자 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246,003.68 억 원 (2021.03 기준)
근로자 수: 1,298,000명

아마존은 2030년까지 배송 및 수송의 50%를 탄소중립화 하는 'Shipment Zero' 목표와 2040년까지 사업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다양한 저탄소 운송수단을 개발 및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Rivian에 전기배달차량 10만여대 제작을 주문하여 택배 배달용 전기차량을 2022년까지 1만대, 2030년까지 10만대 도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로 작동되는 6륜 자율주행 로봇인 Amazon Scout를 이용한 택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서비스 적용 지역을 다른 미국 내 도시로도 확대하고 있다.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232개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총 발전규모 10 GW)에 투자하였다.

3. 자금 조달의 환경 영향(Financing Environmental Impact)

금융기관들은 대출 및 보증 활동의 환경 리스크와 녹색금융과 관련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 받는다.

■ (현대차) 그린본드 발행

〈회사 개요〉 현대차

- ▶ (업종) 자동차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0,661,002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근로자 수: 71,401명
 - 해외 계열회사 수: 96개
- ※ KCGS ESG 등급 A

2021년 2월, 현대차는 ESG채권 중 환경관련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4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그린본드)을 발행했다. 현대차는 확보한 투자금 전액을 전기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투입한다. 현대차는 2년 간 전기차 사업에 총 8068억원을 집행하며, 투자금의 절반을 ESG채권으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ESG채권의 하나로 탄소 감축·건물 에너지 효율화·신재생 에너지·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뿐만 사용이 한정돼 있는 채권을 말한다.

■ (ING, 네덜란드/은행) 녹색채권, 녹색대출

〈회사 개요〉 ING

- ▶ (업종) 금융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07,155.70억 원 (2020.12.31. 연간)
 - 근로자 수: 55,901명
 - 해외 계열회사 수: 48개국 분포
- ※ MSCI ESG 등급 AA / 자금 조달의 환경 영향 부문 Leader

ING는 2020년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빌딩에 자금을 지원하는 10억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ING는 또한 지난 몇년간 아일랜드 최대 은행인 AIB의 녹색채권 발행 시스템 구축을 자문하고, AIB가 2020년 9월 성공적으로 발행한 10억 유로 규모의 녹색채권의 조인트 북러너(joint bookrunner)로 참여했다. AIB 녹색채권도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빌딩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ING는 2020년 7월 싱가포르 태양광업체인 Cleantech Solar에 7500만 달러 규모의 녹색자금을 대출하였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상업 및 산업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대출 수익금은 Cleantech Solar의 동남아시아 사업확장에 사용되어 500MW 이상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 환경 예금

<회사 개요> 스미토모 미츠이 트러스트 홀딩스

- ▶ (업종) 금융업
근로자 수: 5,587명
해외 계열회사 수: 15개국 분포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144.82억 원 (2021.03.31. 분기)
- ※ MSCI ESG 등급 AA / 자금 조달의 환경 영향 Average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은 '그린 예금(환경 예금)'을 취급한다. 기업이나 기관투자자의 예금을 받아 재생에너지 발전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사업 등에 대출하는 상품이다. 일본 은행 중에서는 처음 도입했다.

■ (NOTE) ESG 채권이란? 발행 추이는?

- ▶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친환경 산업이나 공공성을 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 '18년 1조5000억원이던 국내 ESG 채권 발행금액은 2020년 39조3000억원으로 급증. 발행 기업도 공기업과 은행권 중심에서 점차 제2금융권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 ESG 채권 발행시 일반 회사채보다 많은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져 앞으로 ESG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

4. 기후변화 취약성(Climature Change Vulnerability)

보험사는 기후변화가 보험자산이나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등에 의해 평가 받는다.

■ (Chubb, 스위스/글로벌보험사) 자연재해 관련 예상손실액 추산

〈회사 개요〉 Chubb

- ▶ (업종) 보험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413,499.07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31,000명
- ※ MSCI ESG 등급 기후변화 취약성 Leader

Chubb는 MSCI의 ESG 평가 중 ‘기후변화 취약성’ 측면에서 동종업계 대비 리더 등급을 받았다. Chubb는 모델링을 활용하여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예상손실액을 산출하고, 최대 예상손실액 대비 순자산비율을 추산해 자산과 자본 관리를 하고 있다. 대형 미국 허리케인과 캘리포니아 지진의 발생주기를 10년, 100년 및 250년으로 설정해 최대예상손실액을 계산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대형 자연재해 발생주기 100년을 적용할 경우 Chubb의 세전 최대예상손실액 추산치는 미국 허리케인 발생 시 최대 27억 2500만 달러(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주주자본의 4.6%), 캘리포니아 지진 발생 시 13억 200만 달러(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주주자본의 2.2%)이다.

※ 일본 기업 중에서는 도쿄마린홀딩스, SOMPO홀딩스 등이 MSCI 평가 기후변화취약성 항목에서 우수(리더) 등급을 받았다.

II. 천연 자원(Natural Capital)

1. 물 부족(Water Stress)

기업들은 공정의 물 사용 강도, 물 스트레스 레벨과 물 관련 위험-기회 요소 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받는다. (*물 스트레스: 물 부족을 뜻하는 용어, 물풍요국가 > 물 스트레스 국가 > 물기근 국가 분류)

◀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 ▶

1999년 코카콜라는 인도 케랄라주에 음료 공장을 세웠다. 하지만 공장 설립 후 마을의 우물이 말라버렸다. 지하수를 과다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물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고 세상에 알려지며 코카콜라의 평판에는 금이 갔다. 이후 코카콜라는 사용한 물을 다시 자연에 돌려주는 '물 재충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 (삼성전자) 물 발자국 인증 획득

<회사 개요> 삼성전자

- ▶ (업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66,311,191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103,685명
 해외 계열회사 수:
- ※ MSCI ESG 등급 A / 물부족(관리) Average
- ※ KCGS ESG 환경 A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영국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조직단위 '물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조직단위 '물발자국' 인증은 3년간 사업장에 사용하는 용수량과 용수 관리를 위한 경영체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철저한 수자원 관리를 환경보호의 시작점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을 아껴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3R(Reduce, Reuse, Recycle) 활동을 10년 이상 지속해왔으며, 용수 사용량 저감을 사업장의 경영지표로 관리해 왔다. 반도체 제조공정은 청정도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무기질이나 미립자가 포함되지 않는 '초순수'를 사용하며,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용수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최적화하고, 멤브레인(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 기술을 도입해 고농도폐수를 정화시켜 유틸리티 설비에 사용하는 등 폐수 재이용률을 높였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2017~18년 평균 사용량 5,015만톤 대비 2019년 4,911만톤으로 약 104만톤의 용수를 절감했다. 이는 20만 인구가 한달 사용하는 용수 사용량과 비슷한 수치다.

■ (유니레버) 베트남 시장 Comport One Rinse 제품 출시(2006)

〈회사 개요〉 유니레버

- ▶ (업종) 개인, 가정 용품 및 서비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84,322.6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49,000
- ※ MSCI ESG 등급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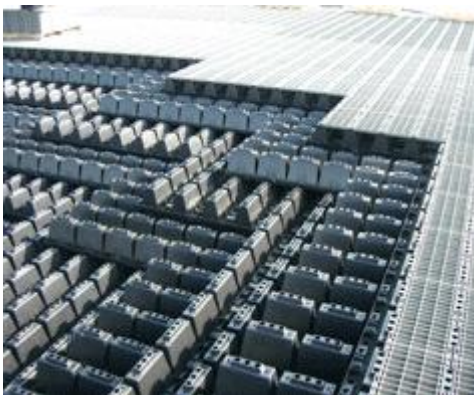
유니레버가 2006년 베트남 시장에서 출시한 컴포트 원 린스는 적은 양의 물로 세탁물을 헹굴 수 있는 제품이다. 당시 슬로건은 ‘물 세 양동이 대신 한 양동으로 충분하다’였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물 부족 국가임에도 세탁물을 헹굴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 왔다. 경제성까지 갖춘 컴포트 원 린스 출시 이후 베트남의 이러한 관행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세키스이 케미칼) 빗물 저장 시스템 ‘크로스 웨이브’(홍수 피해 통제 및 물 부족 대응)

〈회사 개요〉 세키스이 케미칼

- ▶ (업종) 주택건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10,407.35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3,856명
- ※ MSCI ESG 등급 AA

세키스이케미칼(주)의 자회사인 세키스이 테크노몰딩(주)가 개발한 빗물 저장시스템인 ‘크로스웨이브’는 비가 올 경우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물탱크에 빗물을 저장하여 홍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 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인도 등에 해당 시설이 설치되었다. 1998년 프로젝트 시작 이후 약 8,300건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물 저장 용량은 약 206만m³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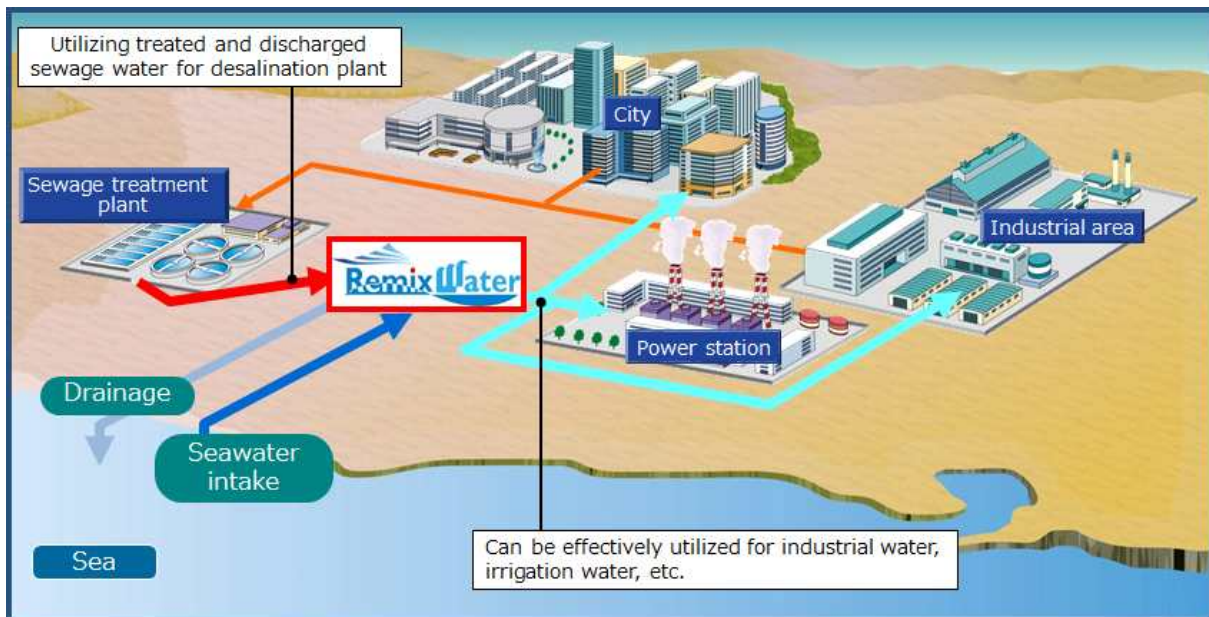


■ (히타치) 리믹스 워터

<회사 개요> 히타치

- ▶ (업종) 전력, 에너지, 산업, 유통 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11,851.81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29,850명
- ※ MSCI ESG 등급 A / 청정기술개발 Leader

히타치의 리믹스워터는 해수 담수화와 하수 재사용 공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산업용·생활용수의 절약, 환경오염 저감 등이 가능하다. 201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더반에서 4년간의 프로젝트 기간을 두고 건설이 진행되었다. NEDO(신에너지·산업 기술 개발 기구) 데모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아래 그림은 히타치 홈페이지)



■ (MS&AD인슈어런스그룹홀딩스) 물 위험 평가서비스 제공

<회사 개요> MS&AD인슈어런스그룹홀딩스

- ▶ (업종) 보험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8,827.31억 원 (2021.03.31. 분기)
근로자 수: 41,582명
- ※ MSCI ESG 등급 AA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인구 증가 등으로 전세계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기업운영에도 위협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본의 제조사나 투자자 사이에서 제품 등 공급업체에 수자원 위험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MS&AD 인터 리스크 연구소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국내외 기지의 수질 고갈 상태, 수질 오염 상황, 홍수발생 상황 등 물 위험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대상 부지가 있는 강 유역의 현재 물 부족 정도(지표), 강의 유량 등을 평가하며,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는 아프리카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정밀 시뮬레이터인 워터 월드(Water World)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강 유량 예측 등이 가능하다.

■ (American Water Works, 미국/수도 유틸리티) 누수 감지 및 물공급 문제 해소 프로젝트

〈회사 개요〉 American Water Works

- ▶ (업종) 수도 유틸리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43,390.18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7,100 명

※ 미국 최대 상하수도 기술력 보유 회사, 시가총액 기준 Water Utilities 부문 1위

아메리칸워터웍스는 수도시설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리 모니터링, 드론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메리칸워터웍스는 누수감지센서로 수도관의 소리 데이터를 취합하고 특별히 설계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은 누수가 발생한 지점을 감지한다. 작은 누수를 미리 파악하고 수도관을 제때 수리하여 더 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메리칸워터웍스 뉴저지 경우 2015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리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누수를 점검 및 수리하여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수의 수도요금(non-revenue water rate)을 29%에서 19%로 감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아메리칸워터웍스는 또한 적외선 감지시스템이 장착된 드론을 비행하여 누수 발생시 나타나는 지상 온도 및 습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대응한다. 수도관 파이프 안에 들어가 균열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드론 및 프로브도 개발 중이다.

아메리칸워터웍스 캘리포니아는 몬터레이 반도의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몬터레이 반도 상수도 프로젝트'(Monterey Peninsula Water Supply Project)를 진행 중이다. 몬테레이 반도는 현재 카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카멜 강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강물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유일한 수원지인 해안가 지하수 분지(Seaside Groundwater Basin)도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아메리칸워터웍스 캘리포니아는 몬터레이 반도 상수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수담수화플랜트와 겨울철에 불어나는 카멜강 물을 끌어다가 해안가 지하수 분지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2021년 중으로 마련하고, 폐수를 식수로 정화하여 다시 해안가 지하수 분지에 주입하여 지하수의 고갈을 방지할 계획이다.

2. 원자재 조달(Raw material sourcing)

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망 추적성 제고 노력에 대해 평가받는다. (공급망 추적성, Supply Chain Traceability: 공급망의 시작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투입물을 검증하는 과정)

■ (히타치) 열대우림 불법벌목 AI 감시

<회사 개요> 히타치

- ▶ (업종) 전력, 에너지, 산업, 유통 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11,851.81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29,850명
- ※ MSCI ESG 등급 A / 청정기술개발 Leader

히타치 제작소는 열대 우림에서 위법 벌채를 막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인터넷에 연결된 음성 인식 센서를 숲에 설치하고 숲 속의 동물 등의 소리의 변화를 인공지능(AI)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불법벌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레인저들이 몰려들어 위법 벌채를 미연에 방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삼림의 보전에 기여하고 ESG(환경·사회·기업 통치)에 대처한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시스템 실증 실험을 완료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에 적용한다. 최근 개발된 시스템은 IoT를 활용, 야생 생물의 울음소리, 발소리, 강의 흐름 등 생태계의 음향 데이터를 AI로 분석한다. 위법 벌목자가 답사 등으로 열대 우림에 들어섰을 때에 발생하는 음향 데이터 변화 등도 감지할 수 있다.

■ (Pirelli, 이탈리아/타이어제조업) FSC 인증 타이어 개발

<회사 개요> Pirelli

- ▶ (업종) 타이어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조 8146억 원 (2020 연간)
근로자 수: 31,489 (2018 기준)
해외 계열회사 수: 31개

피렐리는 세계 최초로 산림관리협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인증을 받은 타이어인 'Pirelli P ZERO 타이어' 제품을 지난 5월 선보였다. Pirelli P ZERO 타이어는 FSC 인증을 받은 천연고무와 레이온이 함유되어 있으며, BMW의 'X5 xDrive45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장착될 예정이다. 천연고무의 70% 가량은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타이어 제품은 천연고무 가치사슬의 지속가능한 변화에 중요하다. 한편, 피렐리 2018년에 설립된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플랫폼'(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Natural Rubber, GPSNR)의 창립멤버 중 하나이다. 타이어 제조 기업(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 포함), NGO 등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및 공유한다.

※ 산림관리협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가 부여하는 FSC인증은 국제적인 산림경영 인증으로, 목재가 채집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공급망 전 범위에 대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 협회는 FSC 인증 부여 시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의 보호, 산림 조림, 지역사회와의 관계, 선주민의 권리 등 10대 원칙과 70개 세부기준에 따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3. 생물다양성 및 토양 사용(Biodiversity & Land Use)

기업은 사업영역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환경영향 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 (소니) 소니컴퓨터과학연구소 협력농업

<회사 개요> 소니

- ▶ (업종) 컴퓨터, 전화 및 가전제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40,820.09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114,400
해외 계열회사 수: 60개
- ※ MSCI ESG 등급 AAA

협력농업은 식물, 곤충, 동물이 조밀하게 생활하도록 생태계를 복원하는 농업방식이다. 소니는 각 토양의 성질, 기후 등 식물을 재배하는 데 유용한 빅데이터 분석, 영농에 유용한 고정밀 센서 기술 등 소니의 기술을 활용한 협력농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촉진,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향상, 환경오염 방지를 추구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실험농장에서 협동농법을 도입해 1년 만에 사막화와 산림 생태계 복원에 성공한 바 있다. 현지 생산 및 소비에 따른 매출은 매월 €1,000, 부르키나파소의 전국 평균 GNI의 20배, 수도 와가두그(Ouagadougou)의 절대 자급 빈곤 수준 라인의 50배, 부르키나파소 통계 연구소(INS)가 발행한 기존 농업 방법의 생산성보다 40~150배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 야생동물 사고 경보 시스템

<회사 개요>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

- ▶ (업종) 보험 금융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25,136 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28,104명
해외 계열회사 수: 19개
- ※ MSCI ESG 등급 A

‘운전력(運転力) 진단’은 미쓰이 스미토모 보험의 무료 스마트폰 앱 ‘스마호(スマ保)’의 핵심기능이다. 스마트폰 가속도계, GPS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진단 외에도 회사가 소유한 사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여러 사고 지점에서의 경보 기능을 갖추고 있다. MS&AD 인터 리스크 연구소와 협력해 스마호 라인업에 ‘야생 동물 사고 경보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야생 동물 교통 사고는 자동차·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희귀 야생 동물 로드킬로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동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동물 접촉사고가 난 지점에 접근할 때 음성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경고 내용은 시간,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진다.

■ (Schneider Electric, 프랑스/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생물다양성 발자국 측정

〈회사 개요〉 Schneider Electric

- ▶ (업종) 전기용 기계 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67,640 억원 (2019년)
근로자 수: 135,00명 (2019년)

올해 10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 앞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30년까지 자체 사업장 활동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이 없도록(no net biodiversity loss)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생물다양성 서약'을 5월에 발표하였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서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글로벌 다양성 발자국(Global Biodiversity Score, GBS) 측정 및 발표, (2)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술 및 방안 개발, (3) 공급사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제품 내 지속가능한 자재 함유량을 50%로 증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전면 제거, 주요 공급사 탑 1000개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축, 수명이 다한 제품 회수를 통해 자원 420,000 톤의 소비 방지 등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글로벌 생물다양성 점수'(Global Biodiversity Score, GBS)'는 프랑스 예금공탁공사(CDC)의 자회사인 CDC Biodiversité에서 개발하여 2020년 5월에 론칭한 생물다양성 발자국을 산정하는 틀이다. GBS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물다양성의 지표 중 하나인 '평균 종 풍부도'(Mean Species Abundance, MSA)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MSA 값은 0%~100%로 표현되는데 100%는 훼손 또는 분열이 없는 온전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GBS 결과는 'MSA.km2' 단위로 표현되며, 주어진 표면 면적의 생태적 온전성(ecological integrity)을 의미한다.

III. 오염 및 폐기물(Pollution & Waste)

1. 유독물질 배출 및 폐기물(Toxic Emissions & Waste)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독성 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 평가받는다.

▶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 ◀

BP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2010):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석유시추시설이 폭발하고, 이후 5개월 동안 약 7억 7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 시추시설 폭발에 의해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 (ABB, 스위스/전력, 자동화기술, 로봇 등 엔지니어링) 글로벌 기준의 화학물질 관리

<회사 개요> ABB

- ▶ (업종) 건설장비 및 대형차, 기차, 배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00,567.1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05,000명

※ MSCI ESG 등급 AA / 유독물질 배출 및 폐기물 Leader

ABB는 유럽의 REACH 및 RoHS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 목록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협력공급업체들에게는 별도의 가이드(Guide for Suppliers to the ABB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Substances) 및 공급업체 행동 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를 제공하여 공급망 전체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해물질 중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VOC가 적은 페인트와 바니시를 사용하고 사업장에 활성탄 필터 등 VOC 제거 장비를 설치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VOC 배출량을 29% 가량 감축했다.

■ (세키스이화학) 쓰레기의 에탄올 변환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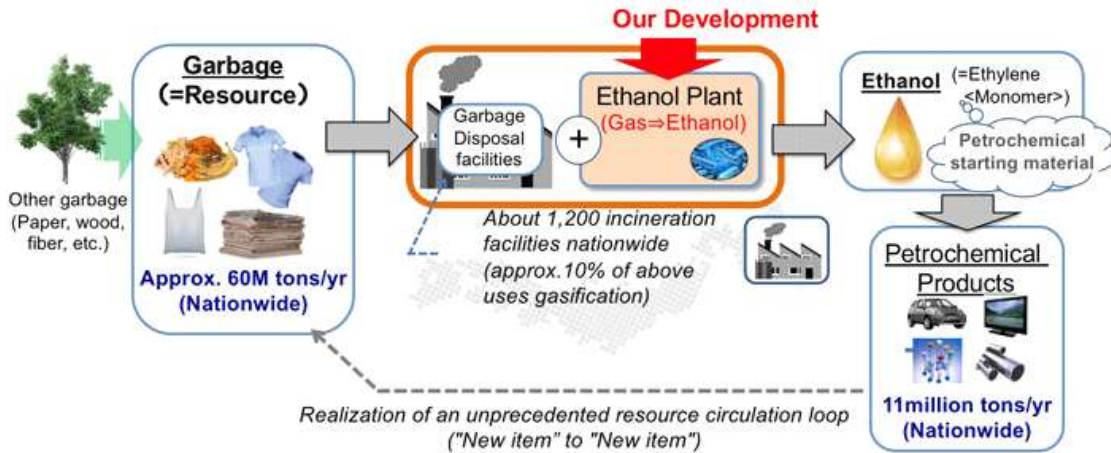
<회사 개요> 세키스이 케미칼

- ▶ (업종) 주택건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10,407.35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3,856명

※ MSCI ESG 등급 AA

세키스이 화학공업 주식회사와 미국 LanzaTech社は 쓰레기의 에탄올 변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일본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연간 약 6,000만 톤이며, 에너지량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 kcal에 달한다. 반면 재사용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세키스이는 사이타마현 쓰레기 처리

시설로에서 오릭스자원순환 주식회사의 협력을 얻어 구내에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고, 2014년부터 3년간 개발을 거쳐 2017년 실제 수집한 쓰레기를 에탄올화하는 데 성공했다. 잡다한 쓰레기를 화학적 조성이 단일한 성분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로 ‘가스화’를 채택했으며, 가스화는 저산소 상태에서 쓰레기를 분자 수준(CO, H2)까지 분해하는 방법이다. 또 미생물 촉매 기술을 사용했다. 미생물 촉매는 열·압력을 이용하지 않고 목표로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첨단 기술이다.



■ (삼양사) 친환경 ‘썩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회사 개요> 삼양사

- ▶ (업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24,770 백만원 (2020.12.31. 기준)
근로자 수: 1,343명
해외 계열회사 수: 3개

삼양사는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PC) 및 부품 개발 추진하고 있다. 특정 온도, 수분 등 퇴비화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를 개발해 PC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이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양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PC) 및 부품 개발’ 과제의 총괄 주도 업체로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이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투명성, 내열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해 전기, 전자 부품과 자동차, 의료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물리적인 방식의 재활용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 그동안 사용 후 매립 혹은 소각 처리가 일반적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의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양사 등 국내외 총 12개의 기업, 연구소, 학계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PC와 이를 이용한 자동차용 내장재 부품 개발을 진행한다.



▲ 삼양사가 생산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PC)'. 투명성 및 내열성이 우수해 전기전자 부품, 자동차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2. 포장물질과 폐기물(Packaging Material & Waste)

기업들은 포장재 의존성, 폐기물 관리, 포장재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받는다.

■ (한화솔루션) 무독성 폴리프로필렌 활용 친환경 포장재 개발

〈회사 개요〉 한화솔루션

- ▶ (업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717,317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5,607명
해외 계열회사 수: 9개
- ※ MSCI ESG 등급 유독물질 배출 및 폐기물(관리) Leader
- ※ KCGS ESG 등급 B+ / 환경 A / 사회 A / 지배구조 B (009830)

한화솔루션은 일회용 스티로폼 포장재를 대체하기 위해 EPP(발포폴리프로필렌)를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했다. 포장재 가공업체 신협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내걸고 일회용 스티로폼 포장재를 대체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다. EPP는 화학발포제를 사용하지 않아 가볍고 웬만한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다. 기존 포장재는 화학발포제를 활용한 탓에 스티로폼 가루와 같은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한다. EPP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했다.

■ (롯데제과) 친환경 패키징

〈회사 개요〉 롯데제과

- ▶ (업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0,760억 원 (2020.12. 연간)
근로자 수: 4,385명 (2021년)
해외 계열회사 수: 28개
- ※ KCGS ESG 등급 A

롯데제과가 제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완충재를 전량 종이 재질로 변경했다. 대용량 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완충재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모두 종이 소재의 완충재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35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제과는 2020년부터 상당수 제품의 포장에 유기용제 대신 에탄올 잉크 등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고 인쇄 도수를 축소하는 한편 포장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또 2020년 9월에는 일부 제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녹색인증사무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포장 기법인 '녹색인증 포장'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또한 환경 독성 물질을 대체하고 유해성을 저감화 시킨다는 점에서 '친환경 다이어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화려함을 버리더라도 환경을 위해 오염물질을 가능한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롯데제과는 현재까지 친환경 포장을 통해 연간 약 470톤의 유기용제 및 잉크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플라스틱도

연간 470톤 이상 줄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롯데제과는 최근 한솔제지와 함께 카카오 부산물로 친환경 종이 포장재 ‘카카오판지’를 개발하여 초콜릿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하기도 했다. 친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 리사이클’을 적용한 제품은 현재까지 150여 개 제품이다. ‘스마트 리사이클’은 재활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쉽게 뜯고 쉽게 접을 수 있도록 개선한 포장법이다.

■ (GS홈쇼핑) 핑거박스 등 친환경 박스 사용

<회사 개요> GS홈쇼핑

- ▶ (업종) 통신판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206,716 백만원 (2020.12.31. 기준)
 근로자 수: 1,037명
 해외 계열회사 수: 1개
- ※ KCGS ESG 등급 A

GS홈쇼핑은 친환경 배송의 일환으로 테이프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조립형 핑거박스를 사용하고 있다. 박스 겉면이 절취선으로 되어 있고 접착제가 불필요하다. GS SHOP 물류센터에서 여러 제품을 한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합포장 상품에도 친환경 배송 컨셉이 적용됐다. 기존의 비닐 완충제와 테이프를 종이로 대체해 재활용이 용이해졌다는 장점이 있다.



▲ 테이프 없는 ‘핑거박스’



▲ 합포장 상품도 친환경 배송 서비스 도입



■ (쿠팡) 재활용 가능 보냉가방

<회사 개요> 쿠팡 (미국)

- ▶ (업종) 통신판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3,925,768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23,299명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제품 주문 시 종이박스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보냉가방인 '프레시백'으로 식품을 배달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프레시백을 배송 받은 후 6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다음 번에 쿠팡 로켓와우, 로켓배송 또는 로켓프레시 배송 시 문 앞에 프레시백을 두면 배달기사가 가방을 수거해 간다. 60일 이내로 가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프레시백 1개당 지연 사용료 8,000원이 부과되고 프레시백 반납 시 사용료를 환불하여, 가방을 분실 없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무라벨 생수병 등 친환경 생수병 개발

〈회사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업종) 생수/음료생산업, 지역개발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942억 1천만원 (2020 연간)
근로자 수: 863명 (2019 기준)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해 사내 친환경 TFT를 발족하여 전사적으로 제품 생산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포괄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인 '그린 홀 프로세스 (Green Whole Process)' 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2017년부터 페트병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페트병을 단일 재질의 무색병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합성수지(HDPE)로 만든 캡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6월 초에 출시한 '제주삼다수 그린에디션'은 기존 생수병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킨 무색병, 무색캡 그리고 무라벨(비닐라벨이 없음) 제품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린에디션을 연내 1억병을 생산해 약 64톤의 비닐 폐기물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무라벨 생수병 출시를 시작으로 재생페트(R-PET) 사용, 바이오페트 개발 연구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플라스틱 25% 절감, 2030년까지 50% 절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실행할 계획이다.

제주삼다수 그린홀 프로세스
JEJU SAMDASOO GREEN WHOLE PROCESS

도민의 기업으로 제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제주개발공사가 ESG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생산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생 산 무라벨 제품 출시(백업) / 무색페트병 사용 / 페트 감량화
수 거 제주도 친역 투명팩트 / 분리배출 수거 사업 진행
재활용 업사이클링 가방, 의류 등 생산

2) 더 나아가 '탈플라스틱'에 도전
- 2030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 바이오 페트 개발

3) 사업장 내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 사업장 내 100% 재생 에너지 / 전력 대체 (RE-100)
-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PEC) 구매 / 감축 능력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단미사로 생산
-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는 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산

생산-유통-회수-재활용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그린-홀-프로세스', 더 나아가 탈 플라스틱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도 도전합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ESG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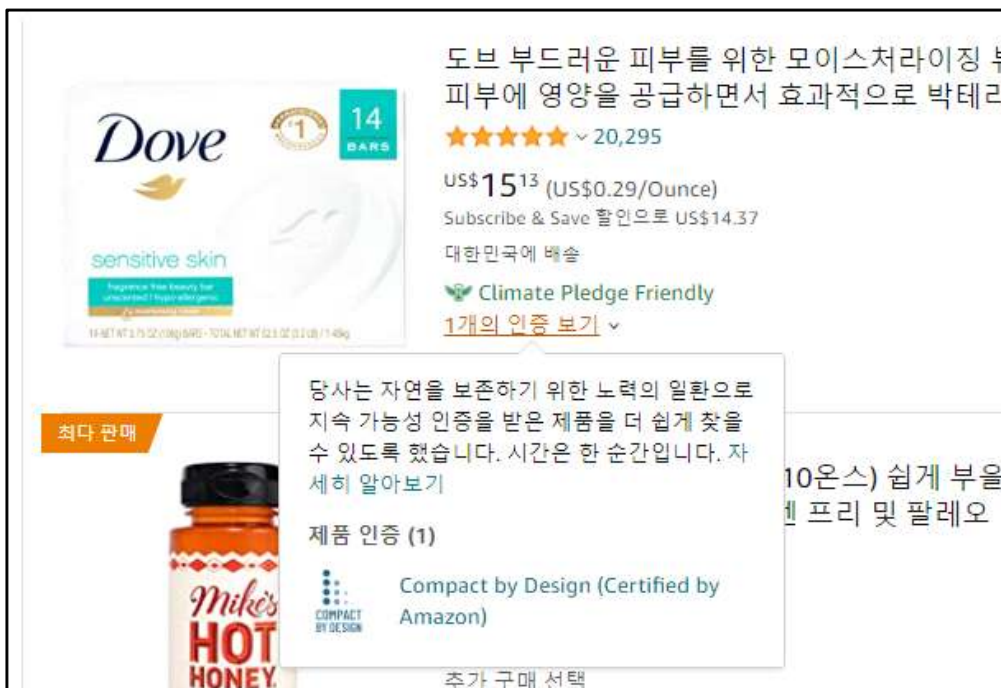


■ (아마존) Compact by Design 인증

<회사 개요> 아마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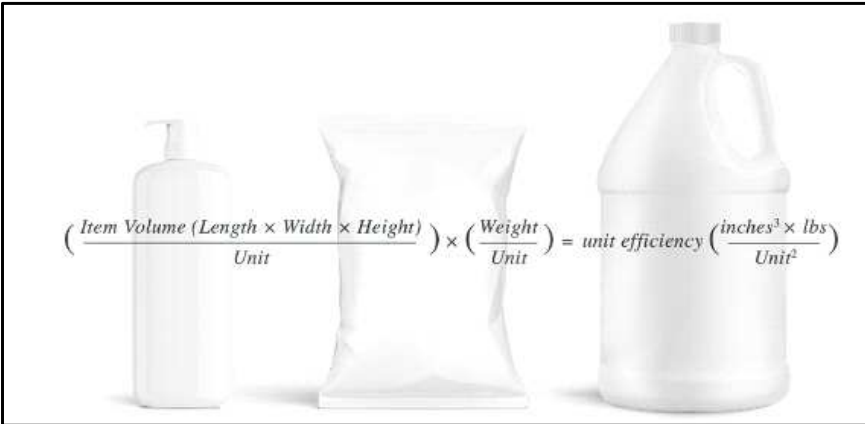
- ▶ (업종) 소매 소비자 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246,003.68 억 원 (2021.03 기준)
근로자 수: 1,298,000명

아마존은 고객들이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적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인 'Climate Pledge Friendly Certifi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은 친환경 인증 23개 중 어느 하나를 부여 받은 제품의 설명란에 'Climate Pledge Friendly'라는 로고와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23개 인증 중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한 컴팩트한 포장 제품에 대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Compact by Design'이라는 인증도 포함되어 있다. Compact by Design은 포장재의 무게, 공간비율 등을 줄인 효율적인 포장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포장재를 더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 배송효율성을 높인 제품, 희석된 용액을 여러 용기에 판매하기 보다 농축된 용액을 용기 하나에 판매하는 제품, 포장재 내 질소 혹은 공기 함유량을 줄여 포장 부피를 줄인 제품 등이 컴팩트한 효율적인 포장재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제품 단위(액체제품의 경우 총 리터, 고체제품의 경우 총 그램 등의 단위) 당 부피와 무게를 곱한 값을 '단위 효율성'(unit efficienc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 아마존이 정한 단위 효율성의 한도(threshold)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은 Compact by Design 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How can you tell that a product is more efficient? We've put together a few examples.

 <p>NOT COMPACT BY DESIGN COMPACT BY DESIGN</p>	 <p>NOT COMPACT BY DESIGN COMPACT BY DESIGN</p>	 <p>NOT COMPACT BY DESIGN COMPACT BY DESIGN</p>
<p>LESS PACKAGING Many products have been designed to stand out on a store shelf. Products don't need eye-catching packaging online and Compact by Design has identified products without this excess packaging.</p>	<p>LESS AIR IN CONTAINER Some Compact by Design products have less air, which can mean less packaging. You can get the same amount of product in a smaller container.</p>	<p>MORE EFFICIENT SHAPE Compact by Design highlights products whose shape allows them to deliver the same amount of product while minimizing cubic inches.</p>
 <p>NOT COMPACT BY DESIGN COMPACT BY DESIGN</p>	 <p>NOT COMPACT BY DESIGN COMPACT BY DESIGN</p>	 <p>NOT COMPACT BY DESIGN COMPACT BY DESIGN</p>
<p>LESS WEIGHT While two containers can hold the same volume, lighter packaging materials make the product more efficient to ship.</p>	<p>WATERLESS TECHNOLOGY Products can be transformed in exciting, new ways. One example is water-based products that are transformed into solids. This drastically decreases product size and weight.</p>	<p>CONCENTRATED PRODUCTS Compact by Design products can be more concentrated than similar products. A concentrated cleaner, when diluted at home, can make many gallons of cleaning solution.</p>



$$\left(\frac{\text{Item Volume (Length} \times \text{Width} \times \text{Height)}}{\text{Unit}} \right) \times \left(\frac{\text{Weight}}{\text{Unit}} \right) = \text{unit efficiency} \left(\frac{\text{inches}^3 \times \text{lbs}}{\text{Unit}^2} \right)$$

■ (앵테르마르세, 프랑스/슈퍼마켓체인) 못생긴 과일·채소 판매 마케팅(폐기물 절감)

<회사 개요> 앵테르마르세(Intermarché)

- ▶ (업종) 유통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61,820 억 원 (2020 기준)
근로자 수: 9,800명

<용어> 푸드 리퍼브(Food Refurb)

마트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할인판매함으로써 곧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제품에 다시금 가치를 불어 넣어주고, 소비자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푸드 리퍼브(Food Refurb)’라고 부른다. 본래 푸드 리퍼브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생긴 농산물을 활용해 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슈퍼마켓 체인인 앵테르마르세 (Intermarche)는 2014년부터 ‘명예롭지 않은’(inglorious) 과일과 야채를 30% 싼 가격에 팔기로 한 정보를 식품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내보냈다. 시험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프랑스 전역의 앵테르마르세가 못생긴 농작물을 판매했다.



3. 전자적 폐기물(Electronic wa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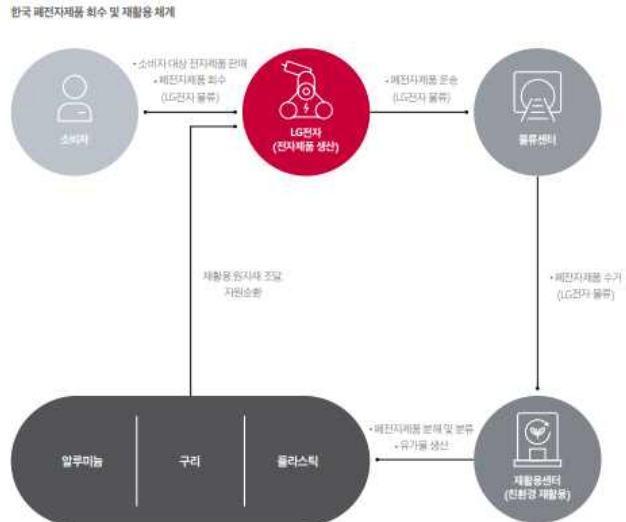
기업들은 전자 폐기물 생산, 전자 폐기물 규정, 제품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평가받는다.

■ (LG전자) 폐전자제품 회수/처리 서비스

〈회사 개요〉 LG전자

- ▶ (업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8,435,323 백만 원 (2020.12.31. 기준)
 근로자 수: 41,381명
 해외 계열회사 수: 119개
- ※ MSCI ESG 등급 A / 전자 폐기물 Leader
- ※ KCGS ESG 등급 환경 A

LG전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폐가전 회수/처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폐전자제품 회수/처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규제가 없는 사업 지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제품 환경영향 저감을 추진 중이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폐전자제품 회수 처리 정책을 공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회수시설 및 회수 체계 등 폐전자제품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게재하여 글로벌 이해관계자와 소통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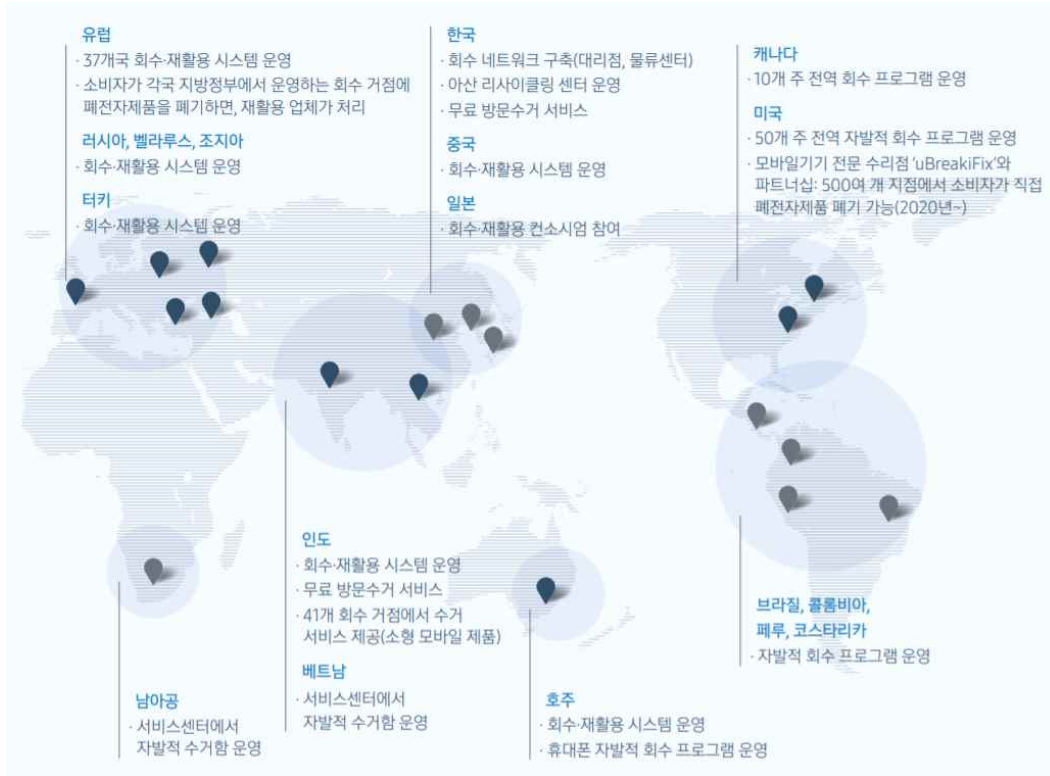
■ (삼성전자)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프로그램

〈회사 개요〉 삼성전자

- ▶ (업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66,311,191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103,685명
 해외 계열회사 수: 230개
- ※ MSCI ESG 등급 A / 전자폐기물, 청정기술개발 Leader
- ※ KCGS ESG 환경 A

삼성전자는 전세계 55개국에서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8년부터 국내 최초 폐전자제품 종합 재활용 센터인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물류센터에

회수체계를 구축해 폐전자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재활용협회 및 재활용업체와 협업하여 폐전자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하고 있다. 수거된 폐전자제품은 선별, 전처리, 파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금속, 플라스틱 등의 원료를 추출하고, 플라스틱 등 일부 원료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생산에 투입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폐전자제품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으로 3366톤의 재생 플라스틱을 만들어 제품 제조에 활용하였고, 국내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에서는 총 2만 9435톤의 구리, 알루미늄, 철, 플라스틱 등 자원을 추출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환경·안전·보건 법규 준수, 협력회사 요건 만족, 폐기물 불법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재활용 협력회사 요건’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 출처: 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2020)

■ (Schneider Electric, 프랑스/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기업) 무정전원장치 폐배터리 회수/처리

<회사 개요> Schneider Electric

- ▶ (업종) 전기용 기계 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67,640 억원 (2019년)
근로자 수: 135,000명 (2019년)

※ MSCI ESG 등급 AAA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PC 무정전전원장치(APC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를 구매한 소비자가 수명이 다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반납하면 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배터리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회사는 2020년에 8천 톤의 폐배터리를 회수하였다.

■ (Cogeco, 캐나다/통신미디어 기업) 전자제품 재사용 및 리퍼비시

〈회사 개요〉 Cogeco

- ▶ (업종) 전기용 기계 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1,033 억원 (2019년)
근로자 수: 4,500명 (2019년)

코게코는 2019년에 컴퓨터를 리퍼비시하여 학교, 도서관, 저소득 가정 등에 배포하는 NGO인 Computers for Success와 파트너십을 맺어 코게코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및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기부하였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들은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2019년에 250대의 컴퓨터 및 모니터를 재사용하고 1815kg의 장비를 재활용하였다. 코게코는 또한 소비자에 판매한 전자제품을 수거, 점검 및 수리 또는 리퍼비시하는 폐기물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8년~2019년 사이 코게코가 판매하는 모뎀, 셋톱박스 등 전자제품 100만개 이상을 리퍼비시하고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였다.

IV. 환경적 기회(Environmental Opportunities)

1. 청정기술개발(Opportunities in Clean Tech)

기업은 청정 기술 혁신 역량, 전략적 이니셔티브 및 청정 기술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 평가받는다.

■ (롯데케미칼) 탄소포집·활용 실증설비 설치

<회사 개요> 롯데케미칼

- ▶ (업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171,306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4,441명
해외 계열회사 수: 46개
- ※ MSCI ESG 등급 탄소배출(관리) Leader

롯데케미칼은 기체분리막을 활용한 CCU(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도입(여수 1공장)해 실증에 들어갔다.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석탄발전소 등에서 방출된 탄소를 포집해 재사용하거나 저장함으로써 대기 중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기술(美환경부)

기체분리막 활용 기술은 다른 업종 등에서 실증작업을 진행했지만, 운송·판매 등 사업성 부족으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롯데케미칼은 약 1년간의 여수 실증 설비 운영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 질소산화물(NOx)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3년까지 상용화 설비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 6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추가 포집한 후 순도를 높여 자체 생산 중인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드라이아이스와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으로 제조해 중소 화학사에 판매할 계획이다.



▲ 여수 1공장 CCUS 실증설비 제어실(왼쪽 녹색)과 전처리, 분리 설비(오른쪽 회색)

■ (LG전자) 에코인덱스를 활용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회사 개요〉 LG전자

- ▶ (업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8,435,323 백만 원 (2020.12.31. 기준)
 근로자 수: 41,381명
 해외 계열회사 수: 119개

※ MSCI ESG 등급 A

LG전자는 2011년부터 주력제품군인 TV,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니터 분야에서 그린 제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LG전자 자체적으로 목표설정 및 성과측정이 가능한 에코인덱스(Eco-Index)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코인덱스는 LG전자의 주력제품 전 모델을 평가하고 각 모델별로 친환경성 수준에 따라 Green 1 Star, 2 Star, 3 Star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도구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친환경제품인 Green 3 Star 비율을 확대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 (후지쯔) 클린테크 개발 장려 위해 내부 시상 시스템

〈회사 개요〉 후지쯔

- ▶ (업종)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75,809.49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126,400명

※ MSCI ESG 등급 AAA / 청정기술개발 Leader

후지쯔는 MSCI ESG 등급에서 Opportunities in Clean Tech 우수(리더) 등급을 획득했다. 동사는 친환경 기술의 자체 발전을 위해서 내부 시상 시스템을 도입했다. Environment Contribution Award Scheme을 1995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SDGs Special Prize Scheme 시상식도 2019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2019년 수상자는 친환경 연료 시스템 도입한 쿠마가야 市 서비스 솔루션 센터다. 쿠마가야 센터는 금융 기관 아웃소싱 서비스와 유통 매장 헬프 데스크 서비스 등 24 시간 365 일 가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많다. 이에 동 센터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SOFC)를 쿠마 서비스 솔루션 센터에 도입해 2020년 1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연료 전지의 도입은 일본 내 후지쯔 그룹에서 첫 사례다. 필요한 전력량을 모두 전력회사로부터 조달한 경우에 비해 CO2 배출량을 연간 약 35 % 감소(18년 대비)시킬 전망이다. 자연 재해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 된 경우에도 안정된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 후지쯔사의 「제9기 환경 행동 계획」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8%(13년 대비)에 약 5.2% 감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상 시스템은 기업의 다양한 클린테크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클린테크 개발 사례

- 양자 컴퓨팅 기반의 ‘디지털 어닐러’를 이용한 물류 일정 최적화로 탄소 감축
-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클라우드 기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 딥 러닝을 가속화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통한 주요 전기 절감 효과
- 지속 가능한 쌀 교환을 위해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통합 공급망 솔루션을 갖춘 디지털 쌀 거래 플랫폼
- COVID-19 감염 예방 조치 지원하는 챗봇 개발 등

■ (엑스모빌/옥시덴탈)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기술 개발

<회사 개요> 엑스모빌

- ▶ (업종) 오일 및 가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053,779.57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72,000명 (2020년 기준)

* 미국의 대표 석유회사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응 적극적

<회사 개요> 옥시덴탈

- ▶ (업종) 오일 및 가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06,178.4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37,000명

엑스모빌(미국)은 CCS기술을 활용한 저탄소솔루션 서비스(상업화) 제공계획 발표(5년 간 3조원 대 온실가스저감 투자)했다. 2020년 10월에는 글로벌 서머스탯과 DAC 공동기술개발약정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미국)은 세계최대 규모의 탄소포집설비를 텍사스에 건설 중이다. 계획대로 2024년 완공되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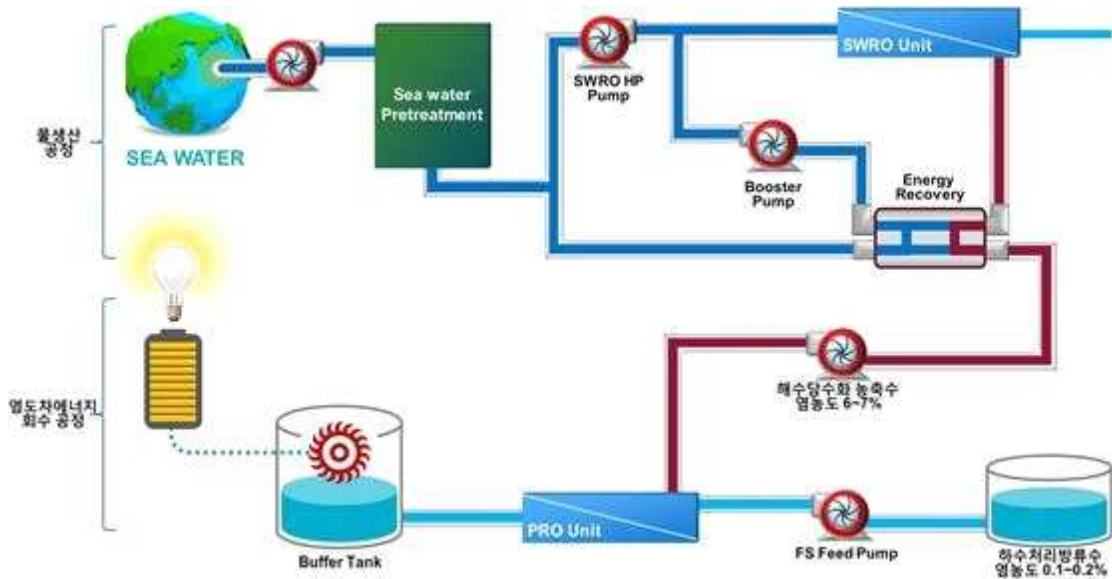
■ (GS건설) 압력지연삼투(PRO) 활용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회사 개요> GS건설

- ▶ (업종) 토목 시설물 건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8,890,992 백만원 (2020.12.31. 기준)
근로자 수: 6,928 명

※ KCGS ESG 등급 A / 환경 A

GS건설은 2014년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염도차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플랜트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공정에서 나오는 농축수와 하수처리 방류수의 높은 염도차를 이용해 높은 효율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랜트(아래 그림)다. 이후 GS건설은 압력지연삼투(PRO) 활용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을 개발했다. 동 기술은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전력 소모량 절감(20% 이상)을 통해 담수화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기존 담수 시설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해수농축수를 유도용액으로 하고 하수처리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삼투에너지를 생성시키고 회수하는 기술로서 담수전력 소모량을 20% 이상 절감하고 기존 담수시설 대비 농축수를 30% 이상 저감해 희석 방류시켜서 해양환경 오염 부하는 줄인다.



■ (AP moller-Maersk, 덴마크/해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

〈회사 개요〉 AP moller-Maersk

- ▶ (업종) 종합물류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9,444 억 원 (2020년 기준)
근로자 수: 83,625명

※ MSCI ESG 등급 AA / 기업지배구조, 탄소배출 Leader

2020년 5월, A.P. 필러-머스크 그룹은 덴마크 대기업 5개(항공사 스칸디나비아항공(SAS), 물류업체 DVS, 여객선 업체 DFDS, 공항사 코펜하겐공항, 재생에너지 업체 Orsted)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세계 최초로 2023년부터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해상풍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계획을 밝혔다.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은 해상풍력으로 수소 생성, 수소 운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린수소 가치사슬에 전방에 얽힌 기업들이 모인 것이다. 그린수소 생산으로 연간 85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Neste Oil, 핀란드/정유회사) 바이오디젤 개발

<회사 개요> Neste Oil

- ▶ (업종) 정유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8,139 억 원 (2020년 기준)
근로자 수: 4,400명 (2019년)
- ※ MSCI ESG 등급 AAA / 청정기술개발 Leader

네스테는 일반 디젤과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여 디젤 엔진, 주유시설 등 디젤 인프라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바이오디젤 제품인 'Neste MY Renewable Diesel'을 개발하였다. 일반 디젤과 달리 Neste MY는 방향족이나 불순물이 없어 연료가 최대 효율로 연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este MY 연료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반 디젤 대비 50~90% 감축할 수 있다. 네스테는 2020년 한 해 주유시설을 추가로 구축하여 핀란드에 기존 70개를 120개로 확대하고, 스웨덴에 신규 130개와 미국 서부지역에 신규 4개의 주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맥도날드 네덜란드(매장 250여개) 및 맥도날드의 협력사인 HAVI와 협력하여 'Fries to miles'라는 튀김용 식용유 순환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Fries to miles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사용한 감자튀김용 식용유를 수거한 후 Neste MY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하여 맥도날드로 물품을 배달하는 HAVI 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이다.



2. 재생 에너지(Opportunities in Renewable Energy)

기업들은 네트워크 확장과 '녹색발전' 오퍼링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개발 및/또는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노력을 평가받고 있다. *LG화학, SK 8개사, 한화큐셀, 아모레 RE100 가입

■ (삼성전자) 미국, 중국, 유럽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사용

〈회사 개요〉 삼성전자

- ▶ (업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66,311,191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103,685명
- ※ MSCI ESG 등급 A / 청정기술개발, 전자폐기물(관리), 자원조달 분쟁 Leader
- ※ KCGS ESG 등급 B / 환경 A / 사회 A+ / 지배구조 C (005930)

지난 2018년 6월,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미국·중국·유럽의 모든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2019년 미국·중국·유럽 사업장의 전력 9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데 이어, 2020년에는 100% 전환을 달성했다.

국내 사업장에는 태양광·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수원, 기흥, 평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신축 부지 등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인도에선 풍력·태양광 발전소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현지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며, △멕시코에선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했고, △브라질에서는 일정 비율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또 다양한 해외 사업장들이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재생에너지 공급계약(Power Purchasing Agreement, PPA) 체결 등 각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 삼성전자 수원, 기흥사업장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 모습

■ (NEXTERA ENERGY, 미국) 신재생에너지 사업

<회사 개요> Nextera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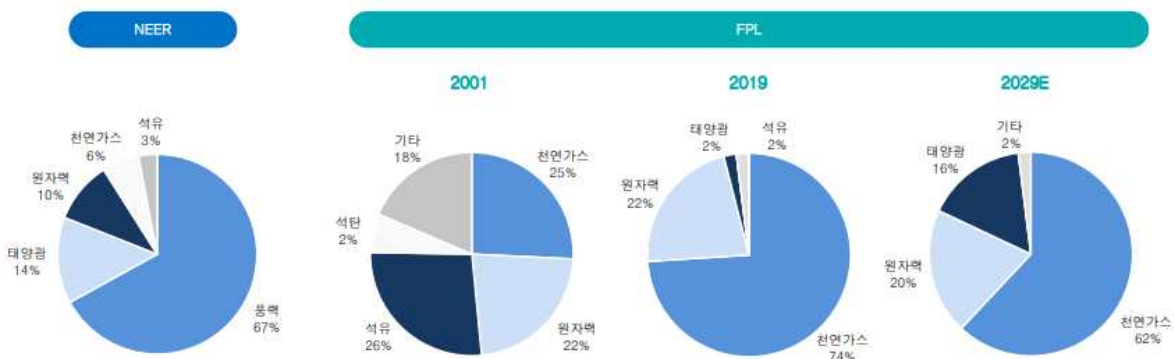
- ▶ (업종) 전기 유틸리티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06,983.50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4,800명
- ※ MSCI ESG 등급 AAA / 재생에너지개발 Leader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핵심 사업부문은 FLP(Florida Power & Light Company)과 NEER(NextEra Energy Resources)이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연간 총 55G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24GW(풍력 67%, 태양광 14%)를 NEER가 담당한다. FPL은 2022년 GPC(Gulf Power Company)와 통합해 발전믹스 내 태양광 비중을 2029년 16%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3,000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 FPL: 플로리다주 500만명 이상의 고객에게 전력 공급, 송전, 판매 사업을 영위

* NEER: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소유, 개발, 건설, 운영

NEER과 FPL의 에너지별 발전설비 비중 추이



자료: 넥스트에라 에너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Orsted, 덴마크/재생에너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사업 전환

<회사 개요> Orsted

- ▶ (업종) 에너지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71,975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6,429명 (2020 기준)
- ※ MSCI ESG 등급 AAA / 재생에너지개발 Average

오스테드는 원래 덴마크 국영 석유기업으로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했다.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2017년에 석유 사업부문을 전부 매각하고 사명을 기존 동에너지(DONG Energy)에서 오스테드(Orsted)로 바꾸었다. 이후 오스테드는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

너지 발전시설을 개발,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2020년 기준 7.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과 1.7GW 규모의 육상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미국, 대만,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 또는 건설 중이며, 2022년까지 해상풍력발전시설 규모를 9.9GW로 확대할 계획이다.

■ (NOTE) 더 클라이밋 그룹은? RE100이란?

- ▶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은 글로벌 RE100 주관기관
-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 ▶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
- ▶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으로 나뉜.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

3. 친환경 빌딩(Opportunities in Green Building)

기업은 부동산 자산의 자원 소비와 탄소 집약도, 환경 건축 규제 노출, 부동산 자산의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토대로 평가된다.

■ 서울시 친환경 사옥(9+1)

- ① FKI타워(영등포구 여의도)
- ② 롯데월드타워(송파구 신천)
- ③ 한화빌딩(중구 장교동)
- ④ 그랑서울(종로구 청진동)
- ⑤ 코오롱 one & only 타워(강서구 마곡동)
- ⑥ 도레이첨단소재 R&D센터(강서구 마곡동)
- ⑦ LG사이언스파크(강서구 마곡)
- ⑧ 이마트 성수점(성동구 성수동)
- ⑨ 아모레퍼시픽(용산구)
- ⑩ 네이버(판교)



■ 롯데월드타워

- ▶ 2017년 국내 100층 이상 건물 최초로 미 그린빌딩협의회(USBC)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에서 골드등급 획득
- ▶ 수열·지열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
- ▶ 전체 대지면적 26,000평 중 7,800평(30%)의 녹지공간 확보, 친환경 문화공간 조성
- ▶ 12대의 풍력 발전기를 통해 자체적 전력 생산

롯데월드타워는 친환경빌딩인증 LEED 골드 등급을 받았다. 2017년, 롯데월드타워는 초고층(50층 이상) 신축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빌딩인증인 리드(LEED)* 골드 등급을 받았다. 일부 평가부분에서만 등급을 인정받았던 기존의 리드 인증 건축물과 달리, 타워 단지 전체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설비를 갖춰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수돗물의 일정한 온도 차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수열 시스템으로 연간 약 17,000MW(4,500가구가 1년 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 가량의 전력을 생산한다. 또 지하의 계절별 온도 차를 이용하여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열 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열 에너지 역시 롯데월드타워의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다.

롯데월드타워 전체 대지면적 26,000평 중 30%인 7,800평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방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롯데월드타워 잔디 광장 가로등에는 12대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가로등을 밝히고 있는 사례는 롯데의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활용사례다.

■ 한화빌딩(중구 장교동)

- ▶ 건물 전면에 계열사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 설치, 미관 개선과 함께 열효율 제고
- ▶ 건물 외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력 생산(BIPV), 전체 연간수요의 약 3% 충당
- ▶ 출입구 야외정원 조성을 통해 도심 녹지조성,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

한화빌딩이 2016 리모델링 통해 ‘친환경 빌딩’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1987년 장교동에 사옥을 둔 한화빌딩이 2016년 3월 리모델링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은 환경을 염두에 두고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셀 생산 기준 태양광 전 세계 1위 기업인 한화큐셀에서 건물 전면부에 태양광패널을 접목한 커튼월 방식을 도입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태양광 빌딩을 만들었다. 일명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로도 불리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건물 외벽에 전지판을 이용하는 건물외장형 태양광 발전시스템)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9층부터 옥상까지 132kWh의 발전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며, 본사 사옥 전체 전력소비량의 3%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기타 건물 남쪽, 북쪽 출입구 앞을 야외정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환경도 보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그랑서울(종로구 청진동, GS건설)

- ▶ 2014년 LEED GOLD 등급 인증
- ▶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을 도입, 연 15%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 ▶ 고효율 LED조명 사용해 냉방부하 소모량 절감. 형광등 대비 40% 이상 에너지 절감
- ▶ 우수·중수 재활용을 통한 효율적 용수 이용, 수자원 절약
- ▶ 폐자재 재활용, 친환경 자재 활용으로 자원 절감 기여

그랑서울은 국내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 등급에 이어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도 획득했다.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로 에너지 관리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 평균 15%에 이르는 에너지 절감을 이뤄내고 있다. 또 고효율 LED 조명과 저수는 LED 사용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시각적 쾌적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친환경 실천. 램프 발열이 적어 냉방부하 소모량이 적고, 형광등 대비 약 4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전등을 활용하고 있다. 중수 처리조에 유입된 중수를 대·소변기 세정 용수와 옥외 조경수로 재활용하고, 빗물(雨水) 역시 처리조에 유입된 우수를 조경용수로 재활용하여 수자원 절약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지내 발생된 폐기물의 75% 이상을 재활용하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함유 실내 마감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 코오롱 One&Only 타워(강서구 마곡동)

- ▶ 2018년 LEED GOLD 등급 인증
- ▶ 코오롱 개발 친환경 자재 및 패브릭 소재 활용, 친환경적 건물 구현에 목표
- ▶ 지열 냉·난방 시스템 활용으로 에너지 절감 달성
- ▶ 건물 자체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전면부 공용공간을 완전한 넷 제로 공간으로 구현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코오롱 One&Only 타워는 원단의 패턴을 모티브 삼아 독특하고도 친환경적인 빌딩을 구현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이러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권위를 지닌 국제건축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서(LEED)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코오롱 인터스트리가 개발한 최첨단 신소재인 강화섬유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을 이용하여 제작된 이중외피 방식의 차양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를 활용해 태양 복사열 유입의 최적화를 이뤄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땅속 온도를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면부의 공용공간은 필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완전한 넷 제로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 FKI타워(영등포구 여의도)

- ▶ 태양광 채광 장치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 ▶ 건물일체형 태양광전지(BIPV)를 사용해 전력 생산, 연 349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 ▶ 중수도 시스템 활용으로 용수 재활용, 수자원 절약

2013년 신축된 전경련회관의 기본 컨셉은 ‘친환경 녹색성장 빌딩’이다.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으로부터 업무용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았고,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정기관인 크레비즈 인증원으로부터 최우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전통적 처마선에서 모티브를 얻은 태양광 패널은 태양을 향해 30도 위쪽으로 향해 있어 태양광을 흡수하고 발전용량을 얻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여름철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는 햇빛과 자외선의 유입을 최소화시켜 주는 처마역할을 해줌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여 준다.

빌딩 옥상과 외벽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동 건물의 1일 태양광 발전량은 2,552KWH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회관 전기사용량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회관은 사용한 물을 중수 처리한 후 화장실 세정용수로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옥상에서 받는 빗물을 지하탱크에 저장한 다음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빗물 재활용시스템을 적용하여 물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지하 150M 깊이의 지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은, 50냉동톤(RT)급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 도레이첨단소재 R&D 센터(강서구 마곡동)

- ▶ ‘환경 문제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환경방침’ 별도 운영
- ▶ 태양광 발전 시설 활용,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구축, 에너지 효율성 증진
- ▶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각 사업장 에너지 체계적 관리

마곡 도레이 R&D센터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방편으로, 땅속 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열 시스템과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구축과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TEMS, Total Energy Mnagement System) 도입을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제어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마트 성수점(성동구 성수동)

- ▶ 2011.11. 국내 1호 녹색 매장 인증, LED조명과 터보냉동기 활용 등 환경친화적 시설 운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
- ▶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약 1,671MW 전력생산
- ▶ 전기차 충전소 설치/운영을 통해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대에 동참

이마트는 유통업계 최초 녹색제품 보급 촉진과 친환경적인 시설 설치, 매장 운영으로 녹색매장에 지정(환경부)되었다. 이마트 성수점은 국내 1호 녹색 매장으로 유통에서 건물운영까지 친환경적 가치를 실천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힘쓰고 있다. 이마트는 고효율 LED 전등 사용과 함께 자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약 1,671MW(메가와트) 가량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는 약 450가구가 1년 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으로,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주차장 5층에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친환경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힘쓰고 있다. 별도로, 이마트는 매년 30개 점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하겠다는 발표하면서 전기차 활용·인프라 확대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아모레퍼시픽(용산구)

- ▶ 고효율 LED조명 사용, DALI 시스템 활용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 ▶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 ▶ '환경문제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 환경방침 운영

폐열회수 공조 설비를 통해 열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 또한 고효율 LED 전등과 DALI*시스템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땅속 온도를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열시스템과 태양의 열에너지를 저장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도 힘써 친환경적인 건물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DALI : 자연광량을 감지하여 스스로 실내 조명 밝기를 조정하는 시스템

■ LG사이언스파크(강서구 마곡)

- ▶ 사이언스파크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 자체 전력 생산
-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값싼 심야전기 저장 후 냉·난방에 활용해 에너지절감기여
- ▶ 흡수식 냉동기(가스를 동력으로 온수와 배기열을 회수해 냉방에 활용)와 같은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LG전자는 미래 준비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증설한다. 특히, 관련 비용 4,154억 원 중 1,900억 원을 ESG 녹색 채권으로 발행·조달해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20개 연구동 중 18개 동의 옥상과 산책로에 LG전자의 태양광 모듈 8,300여 개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또한 약 400 가구의 하루 전력량인 4MW(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해 전기를 저장한 뒤, 전력소모가 집중되는 피크타임에 사용해 에너지 절감을 이뤄냈다. 또 단지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 네이버 그린팩토리(성남시 정자동)

- ▶ 2014년 LEED 플래티넘 세계 최고 점수 획득
- ▶ 빗물로 냉방용수 재활용,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 연평균 5% 이상 에너지사용량 절감

네이버는 2014년, 신사옥 ‘그린팩토리’에 대해 LEED PLATINUM(미 친환경 건축인증제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기존건물분야에서 LEED 세계 최고 점수를 얻었다는 것에, 국내 1위 친환경 IT 기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네이버는 빗물을 재활용해 냉방 용수로 사용하며 수자원 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건물 운영단계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회의실마다 co2 센서를 장착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매년 평균 5%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 <종합> 서울소재 9+1 건물별 주요 에너지 절감 수단

건물명	위치	주요 에너지 절감 수단
롯데월드타워	송파	수열, 지열, 태양열 친환경 설비 1,200톤 규모의 중수도(물 재활용)시설 1,900톤 규모의 물절약센터 운영
한화빌딩	중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시스템 운영
그랑서울	종로	우수/중수 재활용 시스템 고효율HVAC/LED 조명기술 사용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코오롱 One&Only	강서	GFRP를 활용한 이중외피 방식의 차양시스템 지열, 태양광 설비 활용
FKI 타워	영등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시스템 운영 지열, 태양광, 전력제어 시스템 등 활용
도레이 R&D센터	강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마트 1호 녹색매장	성동	고효율 LED조명 활용 태양광발전시스템
아모레퍼시픽	용산	폐열 회수 공조 설비 운영 지열, 태양열, 태양광 설비 활용
LG사이언스파크	강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4MW 규모 운영 LG전자 고효율 태양광 모듈
네이버 그린팩토리	성남 분당	우수(빗물) 재활용 시스템

■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Natick

<회사 개요> 마이크로소프트

- ▶ (업종)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644,815.52억 원 (2020.06.30. 연간)
 근로자 수: 166,475명
 해외 계열회사 수: 59개
- ※ MSCI ESG 등급 AAA / 청정기술개발 Leader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Natick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해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나틱은 컨테이너 형태로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해저에 설치, 운영하는 차세대 친환경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다. 특히, 연안 지역의 풍력발전기나 파도를 활용한 파력발전기를 통해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 친환경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나틱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서버 및 기타 장비를 모니터링하여 오류의 징후를 찾아내고 주변환경이 서버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타이세이건설) ZEB 건물의 보급 확대

<회사 개요> 타이세이건설

- ▶ (업종) 건설 및 엔지니어링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4,917.48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190인
- ※ MSCI ESG 등급 A

ZEB는 Zero Energy Building의 약자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면서 건물이 소비하는 1차 에너지 수지를 연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건물을 의미한다. 타이세이건설은 2014년부터 ZEB 실증 사업을 운영하고 건물의 ZEB화를 점검하는 'T-ZEB 시뮬레이터'를 개발, ZEB 건물 보급을 확대 중이다. T-ZEB 시뮬레이터에 의한 ZEB 실현 지원, 건물마다 ZEB을 실현 해 온 실적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ZEB화 검토 도구가 'T-ZEB 시뮬레이터', 전국의 ZEB화를 목표로 건물 입지나 주변 건물 등의 영향을 고려한 태양광·풍력·지열 등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등을 다양한 패턴으로 비교 검토해 운영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

■ (Engie, 프랑스/전력회사) 건물 및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회사 개요〉 Engie

- ▶ (업종) 에너지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753,573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171,100명 (2019년)
- ※ MSCI ESG 등급 A /물관리 Leader

엔지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고객사인 미국 유타대학교 캠퍼스 81개 건물 및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였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을 달고, 효율성 높은 공조 시스템 설비로 교체하고, 에너지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였다. 그 덕분에 에너지 비용 약 2700만 달러가 절약됐고(프로젝트 초기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약 590만 달러 추가로 절약),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유타대의 기후행동계획에도 기여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

사회편

ESG ‘사회’ 이슈 글로벌 동향

ESG 중 사회(Social)은 ‘사람(People)’과 관련되어 있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한 경영을 ‘사회책임경영’이라고 한다. 사회책임경영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경영을 해야 한다는 주주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주주 이외에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해당사자 중심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9년 8월, 미국 20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Business Round Table) 소속 181명의 CEO가 ‘회사는 소비자, 근로자, 하청업자,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해당사자 중심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 중심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시적으로 고려하며 경영판단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영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EU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기업실사와 기업책임(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입법 논의가 진행중이다. 여기서의 기업실사(Due Diligence)란 ‘기업 또는 기업의 협력사 경영활동으로 인권, 환경, 지배구조 등(ES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을 확인, 완화 및 방지, 모니터링, 공시, 설명,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마련한 절차’를 의미하고, 이러한 절차를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ESG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이해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EU의 기업실사 의무화법은 ‘UN의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UNGP)’의 핵심인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방법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 인권경영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인권경영에 대한 요구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로부터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근로조건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공급망의 붕괴로 노동권 관련 인권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2020. 10.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ESG투자를 선도하는 UN책임투자원칙(PRI)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결정 과정에서 ‘인권경영’을 중요한 투자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인권경영 상황을 점검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또한 2021. 2. 글로벌 기관투자자들(208개)이 공동으로 인권경영 이행이 미흡한 106개 글로벌 기업들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바 있고, 2021.3.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인

권경영 관련 주주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투자대상 회사가 사업활동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사과정(due diligence processes)을 통해 인권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2019.5.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을 발표하였고, 2020. 11. 17에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한바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근로자' 차원에서의 인권경영은 '인적자본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하청업체가 밀집한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붕괴로 11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성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연합체인 '인적자본연합(Human Capital Management Coalition: HCMC)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health & safety), 공급망 인권실사 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관련 정보들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요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요구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인적자본 관련 정보공시를 최초로 의무화하는 SEC 규정이 마련되었다(2020.8.26).

또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투자대상 회사 근로자들의 다양성·평등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 DEI) 개선을 2021년 가장 중요한 주주활동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관리이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 브랜드 손상, 근로자의 잦은 이직, 소송제기 등으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회에 인적자본(supply chain 포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 주의(Stakeholder Capitalism)및 COVID-19의 확산으로 '사람(People)', 특히 근로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ESG중 사회(Social)'영역에서 기업의 '인권경영'과 '인적자본관리'에 대한 법과 주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 인적자본(Human Capital)

1. 인적자원 관리(Labor management)

〈개념〉 Companies are evaluated on the complexity of their workforce (size, labor intensity, and regions of operation), employee relations, strength of worker protections, and employee engagement efforts.

■ (CJ대한통운) 실버택배

〈회사 개요〉 CJ대한통운

- ▶ (업종) 도로 화물 운송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7,811억 원 (2020.12 연간)
- ※ KCGS ESG 등급 A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를 통해 노인일자리·노인빈곤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 모델이다. 고령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 회사는 단지 내 마련된 공동체 친화형 택배 네트워크를 확보해 배송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기업과 사회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형 모델이다. CJ대한통운은 일자리,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라는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실버택배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한 후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남 등 전국 지자체들과 협약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실버택배가 2018년 UN지속가능개발목표부에서 ‘지속가능개발 이니셔티브’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CJ대한통운은 포춘(Fortune)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50’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된 바 있다.



■ (유니레버)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회사 개요> 유니레버

- ▶ (업종) 개인, 가정 용품 및 서비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84,322.6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49,000
- ※ MSCI ESG 등급 AA

유니레버는 2019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웨비나, 영상 및 대면 모듈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지역 수준(regional level)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Training Progra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개발했다. 총 5단계로 구성된 ‘비즈니스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인권 문제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인식 구축을 위한 웹 기반 학습 프로그램으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직원들에게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례 기반, 지역별 맞춤화 되어 일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배포되기 전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The five parts:



■ (Tesco, 영국의 대형 유통 업체) 청년 대상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 기회 제공

<회사 개요> TESCO

- ▶ (업종) 유통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841,025.30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423,092명
- ※ MSCI ESG 등급 AA

Tesco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Prince’s Trust & Institute of Grocery Distribution (IGD)과 파트너십을 통한 중등부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의 Kickstart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Prince's Trust & Institute of Grocery Distribution (IGD): 2018년부터 Prince's Trust와 IGD 파트너십을 통해 중등부 청소년들의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Achieve Club 40개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콘텐츠 개발 및 자원 봉사 기회 등을 제공함. 또한, 2021년부터는 Achieve Club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전역 청소년들의 심리 및 정신 건강을 위해 Young Mind와 협력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Kickstart Program: Tesco는 장기 실업 위험에 처한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 및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Kickstart Program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및 기술 개발 투자, 그리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1월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900명을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Tesco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다.

■ (아디다스) 현대판 노예 지원 프로그램(Modern slavery outreach program)

〈회사 개요〉 아디다스

- ▶ (업종) 스포츠 용품 제조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59,775.28 억 원 (2021. 12. 30 연간)
근로자 수: 62,285명
- ※ MSCI ESG 등급 AAA

아디다스는 1990년 말부터 인권 및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회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및 이주민 권리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기존에 보호받지 못한 Tier 2에 해당하는 가공 시설 및 Tier 3의 원자재 공급원에 포함된 계층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판 노예 지원 프로그램(Modern Slavery Outreach Program)’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발표된 현대판 노예 정책(Modern Slavery policy)을 바탕으로 강제 노동, 인신매매, 노예 제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맞춤형 위험 기반 실사 프로세스, 리스크 평가,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대판 노예제도 및 강제 노동에 관한 훈련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의 Tier 2 공급업체를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강제 노동 등에 대한 문제 인식 및 프로그램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P2P(Peer-to-Peer) 학습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PepsiCo) 여성 고용 강화 프로그램

〈회사 개요〉 PepsiCo

- ▶ (업종) 음료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21,091.59억 원 (2021.06.12. 분기)
근로자 수: 69,100명
- ※ MSCI ESG 등급 AA / 건강 및 안전 Average / 기업지배구조, 기업윤리, 영양 및 보건 기회 Leader

PepsiCo는 2025년까지 여성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총 1억 달러의 준비 및 지원 자금 계획을 발표

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570만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여성 근로자의 취업 준비 및 자원 제공 프로젝트, 글로벌 식량 시스템 및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니셔티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약 6,475만 달러를 투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PepsiCo는 2008년 당시 한 명의 여성 직원을 두고 있었지만 현재 약 140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채용한 상태이며, 여성 권한 부여, 성장 및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 전 지역에서 여성을 위한 운전 면허증을 후원 및 탁아소 운영 등을 시작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16년에 FUNDE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여성을 위한 교육,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2,000명 이상의 여성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로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8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7,400명 이상의 여성이 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65%가 사업 매출이 증가하였고, SNS 관리 능력 향상(71%) 및 기업을 운영(75%)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 (애플)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

<회사 개요> 애플

- ▶ (업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29,320.16 억 원 (2021.03 기준)
근로자 수: 147,000명

애플은 2020년 인종차별을 막고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REJI(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니셔티브에는 흑인 대학(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을 위한 학습 허브인 프로펠 센터, 디트로이트 지역 학생들의 코딩 및 테크 교육을 지원하는 Apple Developer Academy, 그리고 흑인 및 갈색인 기업인을 위한 벤처 캐피탈 펀딩 등이 포함된다. 애플은 미국 전 지역에서 유색 인종의 커뮤니티 기회 확대,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환경·사회 이니셔티브 담당 부사장인 리사 잭슨(Lisa Jackson)이 이끌고 있다.

특히 애플은 프로펠 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 등 다양한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다. 애플의 2,500만 달러 지원으로 설립되며, AI, 머신 러닝, 농업 기술, 사회적 평등, 엔터테인먼트 아트, 앱 개발, 증강 현실,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 아트, 취업 준비 그리고 창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1억 달러 규모의 인종간 평등 및 정의 이니셔티브(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 약속의 일환으로, Apple은 전체 HBCU 커뮤니티에 교육 커리큘럼, 인턴십 및 멘토십 기회를 제공하게 될 혁신 허브인 프로펠 센터(Propel Center) 개소를 지원할 예정

2. 인적자원개발(Human Capital Development)

기업은 직무 요구사항과 숙련된 노동력 유치, 역량 개발 능력을 평가받는다.

■ (3M) 사이언스 앳 홈 프로그램

<회사 개요> 3M

- ▶ (업종) 복합 제조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70,405.66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94,987명
- ※ MSCI ESG 등급 AAA

3M은 2020년 팬데믹으로 원격학습을 하던 미국 전역의 학생 5천 5백만 명에게 Science at Home 프로그램 제공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온라인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각각 3M 과학자, 엔지니어 또는 특별 게스트가 포함된 20개 이상의 실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공립 학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바켄 박물관 등 다양한 교육 파트너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다. 한편 3M은 이 프로그램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 (유니레버) 지역 매장 판매자 대상 비즈니스 기술 구축 프로그램 운영

<회사 개요> 유니레버

- ▶ (업종) 개인, 가정 용품 및 서비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84,322.6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49,000
- ※ MSCI ESG 등급 AA

유니레버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왔으며, 매장 소유주/판매자와 유통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즈니스 운영 및 금융 기술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의 Kabisig Program: ‘연결된 팔’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Kabisig 프로그램은 ‘Negosyo Mo, Kinabukasan Mo’(Your Business, Your Future)이라는 표어와 함께 필리핀의 매장 소유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상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현금 흐름 및 재고 관리, 판매 및 고객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33,000명의 상점 판매자가 Kabisig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참여 인원의 90%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도의 Shakti Program: 인도 내 농촌 지역이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상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 판매 에이전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유니레버는 여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기업가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Shakti 프로그

램을 시작해 유통 네트워크의 일부로 여성들의 고용 기회 창출 및 비즈니스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까지 인도 농촌 지역에서 130,000명 이상의 여성이 Shakti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매장 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 유니레버 제품을 판매하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Shakti 프로그램은 스마트 결제 체계를 구축하여 판매 에이전트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결제 및 주문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여 기존에 현금 전용 결제 방식보다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신흥 시장의 저소득층 농촌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 (아디다스)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및 공급업체 교육 및 강화 프로그램

〈회사 개요〉 아디다스

- ▶ (업종) 스포츠 용품 제조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59,775.28 억 원 (2021. 12. 30 연간)
근로자 수: 62,285명
- ※ MSCI ESG 등급 AAA

아디다스의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Women Leadership Program, WLP)이 2016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기존에 여성 감독자로서 전문 지식의 개발, 모범 사례 교육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한 플랫폼인 '여성 감독자 포럼(Women Supervisor Forum, WSF)'에서 제공되었던 교육 및 기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션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1,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급업체 교육 및 강화 프로그램: 아디다스는 공급망 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단계 및 다기능 교육 세션 시스템을 시작하였고, 2018년에는 약1,200명 이상의 공급업체 직원들과 총 143회의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 (NVIDIA) 여성 청년 대상 STEM Education Pipeline 구축

<회사 개요> NVIDIA

- ▶ (업종)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91,945.93억 원 (2021.01.31. 연간)
근로자 수: 13,2777명
- ※ MSCI ESG 등급 AAA / 지배구조, 인적자원관리 Leader

NVIDIA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 분야에 더 많은 여성 기술자 및 소수 집단 청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STEM Pipeline을 구축했다. STEM Pipeline은 NVIDIA 엔지니어들과 청년들이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실습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STEM 교육 비영리 파트너인 Technovation과 협력하여 기술을 통해 여성들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Technovation과 UNESCO가 주도하는 Online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통해 소녀들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멘토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Rio Tinto) 디지털 기술 및 리더 양성을 위한 Future Minds Accelerator 프로그램

<회사 개요> Rio Tinto

- ▶ (업종) 광산 및 자원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13,160.3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47,474명
- ※ MSCI ESG 등급 A

2019년, Rio Tinto는 미국의 선도적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기관)인 BlueChilli과 Amazon Web Services와 협력하여 호주 교육과 혁신 부문에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기술 및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uture Minds Accelerator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4년간의 파트너십과 약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호주 어린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및 자동화 등과 같은 기술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700명의 교사들에게 교육 및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약 1,000곳 이상의 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생 기업들이 사업을 성장시켜 32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BP) 인력 개발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just transition 방안 마련

〈회사 개요〉 BP

- ▶ (업종) 오일 및 가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856,298.12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63,600명

BP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적용되는 ‘just transition(정당한 전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저탄소 전환(low carbon transition)으로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완화하는 ‘just transition’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산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저탄소 부문의 일자리/인력 풀(labour pool)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인도에서는 Clean Energy Access Network(CLEAN)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기술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발전 장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 수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just transition의 일환으로 교육 및 일자리 고용 관련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교육 부문에 있어 BP는 1972년부터 다양한 교육 및 기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대표적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관심과 커리어 개발을 위해 AFS Intercultural Programs와 협력하여 브라질, 이집트, 인도 및 미국에 Global STEM Academies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영국 정부와의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Project ENTHUSE를 발표하여 청년들과 교사들에게 전문성 개발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3. 건강 및 안전(Health & Safety)

기업은 사업장 안전관리와 사업장이 운영되는 산업·지역의 사업장 안전기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 (이토추 상사) 과학적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 〈회사 개요〉 이토추 상사
- ▶ (업종) 종합 상사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156,531 억 원(2021. 12. 31 연간)
근로자 수: 4,264명
- ※ MSCI ESG 등급 AAA

이토추상사는 MSCI ESG 등급에서 Health & Safety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 기업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임직원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건강검진률 100%, 사내클리닉 구축, 장기 치료 지원, 구내식당 건강한 식단 제공, 금연 치료비 지원 등의 액션 플랜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직원의 BMI 등 건강지표, △장기 투병으로 인한 퇴사율, △근로자 스트레스 지수 체크 등을 사용한다.

※성과측정: 객관적 지표에 따라 작년 성과 명시(아래 예시)

액션플랜	2019년 성과측정
전 직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완료율 100% 달성
구내식당 건강 식단 제공	비만도(BMI 지수) 2% 감소(11년 대비)
중증 질병에 대한 지원	암 혹은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율 0%
스트레스 테스트 고위험 직원 비율 5% 유지	스트레스 테스트 고위험 직원 비율 2.9%

이토추상사는 또 도쿄 본사에 이토추 임직원 건강관리센터(Health Administration Center)를 운영중이다. 의사, 방사선사, 약사 등 총 20명의 의료진이 상시 임직원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내과, 정형외과, 치과, 건강검진, 백신 접종 및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또 임직원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Health MyPage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건강상태를 기록, 고위험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제공(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건강데이터 관리, 전문가 상담) 금연 프로그램 제공하며, 450명 이상의 직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이다.

■ (유니레버) 안전문화 구축 캠페인 · 프로그램

〈회사 개요〉 유니레버

- ▶ (업종) 개인, 가정 용품 및 서비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84,322.6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49,000
- ※ MSCI ESG 등급 AA

‘건강 및 안전’은 유니레버의 핵심 인권 이슈 중 하나로써 이에 관한 총 책임은 고위 임원진 그룹인 유니레버 Leadership Executive에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임원진들에게 안전 이슈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행동 기반 안전 프로그램인 Executive Leadership Workshop을 통해 국가 수준의이사회 구성원(country-level Board members)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제조 현장/사업장 내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 World Class Manufacturing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안전에 관한 필수 교육을 이수 해야하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이후, 현장 사고 발생율이 이전보다 30% 줄었음. 그리고 전 세계 유니레버 팀 가운데 안전에 관한 6개 카테고리(공장, 물류, 사무실 및 기타 센터, 건설 현장 및 공정, 그리고 차량 안전) 부문에서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팀에게 Annual Global Safety Awards을 시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정 공장인 Sei Mangkei Oleochemicals가 Annual Global Safety Awards상을 받았다.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중 하나로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인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Safe Travel Programme을 도입하였고 이후,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도로 관련 충돌 사고로 인한 직원의 부상률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Ericsson) 에릭슨 케어 프로그램

<회사 개요> Eric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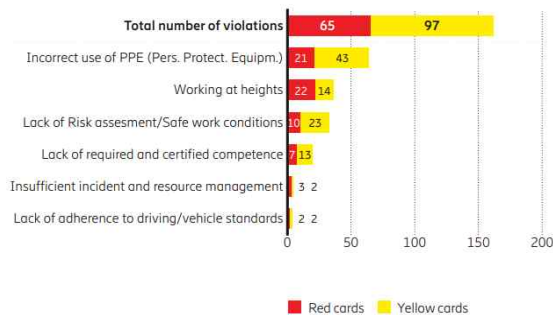
- ▶ (업종) 통신 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19,390 억 원 (2021. 12. 31. 연간)
근로자 수: 100,824명
- ※ MSCI ESG 등급 AA

Ericsson은 산업 안전 및 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Ericsson Care Program을 통해 사업장의 소싱 과정 및 작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ricsson Care Program은 안전을 위한 조직 전체의 리더십, 안전 관련 지식 및 인식 제공, 표준화된 작업 방식 및 프로세스 구축, 직원 및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 안전 및 웰빙 문화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디지털화 하여 전 세계 사업장 및 직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Ericsson Care Program과 함께 현장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적용되는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Consequence Management Process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위반한 공급 업체들에게 레드카드와 옐로우카드를 발급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반에 따른 결과(추가적인 검사/감사 이행, 재정적 벌금, 서면 경고, 사업 종료/사업량 감소 등)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2’ 참조). 2020년에 실시한 Consequence Management Process 결과, 현장 서비스 공급업체가 위반한 사항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요인은 ‘개인 보호 장비의 잘못된 사용(Incorrect use of PPE)’에 관한 것이었으며, 총 162건(레드 카드 65건, 옐로우 카드 97건)이 발생했다(아래 ‘그래프 1’ 참조).

이와 같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 Ericsson은 2022년까지 주요 사고 발생률 약 30% 감축 목표를 2019년 이미 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약 43%로 주요 사고 건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9년 대비 36%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raph 1: Supplier consequence management in 2020



Graph 2: Consequences applied to suppliers



4. 협력사 근로자 정책(Supply chain labor standards)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과 관리 능력, 협력사 위치 지역의 작업기준에 대해 평가받는다.

- RISK 관리 실패 사례 -

■ (폭스콘) 애플 하청업체 대만 폭스콘 노동착취(초과노동, 저임금)에 따른 근로자 투신사건(2010)

애플의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 폭스콘 사에서 2010년을 시작으로 20명이 넘는 근로자가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 과도한 초과노동)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애플을 포함하여 폭스콘과 계약한 델, 소니 등의 기업에서 제품공급망(Supply Chain) 안정성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대두되었다.

■ (나이키) 파키스탄 등 아동노동(1990s)

1990년대, 나이키에서 파키스탄 시알코트 지역을 포함한 제 3국의 가난한 아동들을 착취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96년, 미국의 '라이프'지에 가난한 아동이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모습이 게재되며 '나이키의 제 3세계 저임금 착취' 주장이 힘을 얻었고 이는 미국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불매운동의 확산과 주가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

■ (유니레버) Responsible Sourcing Policy

〈회사 개요〉 유니레버

- ▶ (업종) 개인, 가정 용품 및 서비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84,322.6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49,000
- ※ MSCI ESG 등급 AA

유니레버는 책임있는 소싱 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 RSP)와 책임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정책(Responsible Business Partner Policy)를 통해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12가지 원칙을 구성하고 있으며(아래 그림 참조), RSP가 전체 공급망 내에서 적용되고 준수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은 유니레버가 RSP에서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는 이슈 중 하나로 특히, 강제 노동에 취약한 환경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채용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Employer Pays Principle(EPP)(이주노동자들의 채용 방식 및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전문가 단체가 협업하여 2016년 5월 출범한 이니셔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또 Respect, Dignity and Fair Treatment Policy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에 따라 모든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고용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새도우 감사(shadow audits)를 이행하고 있다.

The 12 Fundamental Principles of our Responsible Sourcing Policy



한편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AIM-Progress(‘빠른 이동 소비자 상품/소비재(fast-moving consumer goods, FMCG)’ 제조업체를 위한 책임있는 조달 관행과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활성화 및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를 통해 다양한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제 노동 근절 및 책임있는 채용 문화 촉진, 공급망 내 임금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이주 노동자 관리,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노동 계약 관리 등 책임있는 소싱/조달 등에 관한 문제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2017년부터 공동 후원사로 참여하여 UAE,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및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Tesco) Responsible Sourcing Network 관리

<회사 개요> TESCO

- ▶ (업종) 유통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841,025.30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423,092명
- ※ MSCI ESG 등급 AA

Tesco는 ‘Responsible Sourcing Network(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고 책임있는 공급망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기업 및 시민 단체 등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공급망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강제적으로 면화를 따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07년부터 당사 제품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화를 공급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제품에 사용되는 원면(raw cotton)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4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강제 노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인 ‘Responsible Sourcing Network의 면화 서약(cotton pledge)에 서명함으로써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Google · Alphabet) 강제노동 금지 정책 및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회사 개요〉 Google/Alphabet

- ▶ (업종)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091,759.42 억 원(21. 12. 31 연간)
근로자 수: 135301명

공급업체로부터 부패, 뇌물 수수, 횡령 등의 불법 행위나 강제 노동 등에 직·간접적인 관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경영 활동, 재무 상태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공급업체 계약서(supplier contract)에 국제적 인신매매, 강제 노동 및 현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관련 법들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Policy Against Modern Slavery 정책에 따라 현대 노예제도에 관한 행위가 보고된 모든 시설에 대해 감사할 권리 및 정책 위반 시 계약을 종료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공급업체들이 윤리 경영(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강제 노동 및 현대 노예제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Supplier Code of Conduct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019년 12월 31일 기준, 고위험군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Google 직원의 95% 이상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함).

■ (Hewlett Packard Enterprise) 공급망 노동착취 금지 표준 마련

〈회사 개요〉 Hewlett Packard Enterprise

- ▶ (업종) 컴퓨터, 전화 및 가전제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50,838.75 (20. 10. 31)
근로자 수: 53000명
- ※ MSCI ESG 등급 AA / 인적자원관리 Leader

HPE는 노동 리스크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노동 착취에 가장 취약한 두 집단으로 ‘외국인 및 이주 노동자’와 ‘중국 학생 및 파견 근로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급망 내 불법 노동 관행이 허용되지 않도록 Employer Pays Principle과 당사의 공급망 책임 프로그램(Supply Chain Responsibility Program)을 통해 지속적인 감사, 모니터링 및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Supply Chain Foreign Migrant Worker Standard’를 통해 공급업체에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IT 업계의 최초 기업이며, 이 표준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채용 수수료 지불을 금지하고, 공급업체에게 대행사를 통한 채용 비율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등 공급업체가 고용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강제노동의 위험을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II. 제품책임(Product Liability)

1. 제품안전 및 품질 관리(Product Safety & Quality)

기업은 리콜 혹은 제품 안전 문제에 대한 노출, 공급망 및 소싱 시스템 역량, 제조에 대한 품질 관리 노력, 마케팅 관행에 대해 평가받는다.

- RISK 관리 실패 사례 -

■ (폭스바겐) 배기가스조작 사태(2015)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서 디젤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 이상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초반에 이를 작은 기술적 문제로 치부하던 폭스바겐은 결국 디젤 배기가스 계측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밝혀진 이후에 배기가스 조작을 인정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폭스바겐 차량 판매를 금지하거나 리콜 명령·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기업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 (마텔) 중국산 바비인형 납 검출 사건(2007)

바비인형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 완구기업 마텔 사가 중국에서 만든 100만 개의 장난감 리콜을 발표하며 중국산 장난감의 안전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중국산 장난감에서 검출된 납 성분으로 인해 촉진된 리콜 사태로 인해 장난감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2. 화학적 안전성(Chemical safety)

기업들은 제품내 유해 화학물질 포함 가능성, 화학 규제 리스크, 대안 개발 노력에 대해 평가 받는다.

- RISK 관리 실패 사례 -

■ (바이엘)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소송(실패사례)

독일 화학제약기업인 바이엘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라운드업 제초제와 유전자 변형작물(GMO)로 유명한 미국 종자기업 몬산토를 2018년 6월 630억달러에 인수하였다. 그러나 몬산토 제조체의 안전성 관련해 12만여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이 바이엘에 제기되었고, 2018년 8월 캘리포니아 법원이 라운드업 제조체로 암에 걸린 학교 관리인에 7,850만달러 배상판결, 항소심에서도 글리포세이트의 암 발생 연관성을 인정해 바이엘에 2,04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라운드업 사용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원고 12만5천여명중 75%를 대리하는 변호인들과 109억달러 규모의 조정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엘의 부채가 급증하고 2018년 한해동안 주가는 40%까지 하락했으며, 독일 시총 1위기업이던 위상이 제품 화학적 안전성 문제로 크게 실추되었다. 바이엘의 MSCI ESG 등급도 2018년 BBB등급에서 몬산토 제초제 사건이 터지면서 BB등급으로 하향되었고, 화학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미흡등급(Laggard)으로 평가받고 있다.

■ (홈디포) Chemical Strategy 수립(2017) 및 PFA 제품 판매 중지

〈회사 개요〉 Home Depot

- ▶ (업종) 전문품 상점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20,321.88억 원 (2021.01.31. 연간)
근로자 수: 504800명
- ※ MSCI ESG 등급 AA / 화학적 안전성 Leader

미국에 본사를 둔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디자인 도구 판매 업체인 홈디포는 2017년 Chemical Strategy 수립하고 2019년부터는 홈디포에서 판매하는 카펫과 러그에서 PFA(Perfluoroalkoxy)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홈디포의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는 'PFA 제품을 배제하는 것이 고객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위한 약속의 한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판매하는 상품에서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와 화학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는 다이클로로메테인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홈디포는 제품 화학성분의 제3자 인증을 유지하고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공급업체와 협력해 실내 공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사용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문 혁신진행상황의 주기적 평가를 약속하는 화학 정책을 수립, 이해관계자의 니즈 충족을 위해 매년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홈디포는 GC3에 가입해 Retail Leadership Council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제품 발전을 위한 친환경 화학 및 안전한 대안 사용에 관한 GC3의 공동 성명서 개발에도 참여했다.

3. 금융상품의 안전성(Financial Product Safety)

금융 기관은 비윤리적 금융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평판 하락 및 규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제품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 평가 받는다.

- RISK 관리 실패 사례 -

■ (웰스파고) 유령계좌 스캔들(2018)

미국 자산기준 4위 은행인 웰스파고의 리테일뱅킹 부서직원들은 2011년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의 정보를 도용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체, 신용카드 계좌 개설, 상품 끼워팔기 등을 단행했다. 2013년 미국 LA타임스가 웰스파고의 유령계좌 개설 의혹을 보도하면서,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6년 9월 웰스파고가 5년간 고객 200만 명의 명의를 무단도용한 유령계좌 스캔들이 폭로되었다. 웰스파고의 사기적 판매 관행은 내부직원들에 의해 인사팀, 내부통제부서 등에 수년간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이사회 차원에서도 관련내용이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령계좌 사건의 배경은 웰스파고의 수수료 중심 수익모델, 교차판매, 실적주의 경영전략 등을 들 수 있으며, 영업목표 할당 및 교차판매에 연동된 직원의 보수 결정으로 직원을 압박하면서 수수료를 높이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직원들은 유령계좌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웰스파고는 청문회 개최, CEO 사퇴 압력, 미 연준(FRB)으로부터 자산규모 동결 및 이사진 교체 지시, 미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경영진 제재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웰스파고는 2017년 7월 고객 집단소송 합의금(1억 4,200만달러), 2018년 12월 미 주정부에 합의금(5억 7,500만달러), 2019년 3월 주주들이 이사들이 불법영업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 손해배상금(2억 4천만달러)을 지급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안전성, 열악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웰스파고의 유령계좌 사건으로 MSCI ESG등급에서 금융상품 안전성 부문에서 미흡등급(Laggard)로 평가받고 있다. 웰스파고는 유령계좌 사건을 겪으면서 성과연봉제 폐지, 경영진 성과급 환수 이외에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영진 및 이사진 교체, 독립 이사회 의장 선출, 새로운 감독포지션 신설, 상품판매 관행 및 은행업무, 고객들의 불만신고 조사 전담팀 별도 설립계획발표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4.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Privacy & Data Security)

기업은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의 양, 데이터 보안, 개인 데이터 보호 시스템에 관해 평가된다.

- RISK 관리 실패 사례 -

■ (페이스북)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건

(2016년) 美 대선 당시 英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정치 광고 목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 8천여만명의 데이터를 불법 수집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2019년) 페이스북 이용자 2억670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2021년) 4월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명 개인정보 멕시코 소재 미디어업체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
한국을 포함한 106개 국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연락처 ID 이름 거주지 생일 등 정보 포함
페이스북은 “유출된 데이터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란 짝막한 입장만 발표해 여론 못매

■ (KDDI) 가장 엄격한 EU GDPR 준수, 정보보안위원회 운영

〈회사 개요〉 KDDI

- ▶ (업종) 통신 서비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56,574.43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44,952명

※ MSCI ESG 등급 AAA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Leader

KDDI는 MSCI ESG 평가에서 PRIVACY & DATA SECURITY 분야 우수(리더) 등급을 획득했다. 동사는 정보보안위원회(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 설치·운영중이다. 동 위원회는 전사적으로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고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근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데이터 안보·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프레임워크, 위험과 기회 요소 등을 인지하고 보고서에 공개하고, ISO 27001 등 정보 보호 관련 국제 표준 인증 현황도 공개한다.

KDDI 본사 및 EU 지사는 보다 강도 높은 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EU GDPR을 완전히(fully) 준수하고 있다. EU GDPR은 18년 5.25.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역외이전 요건 등을 담고 있다.

KDDI는 또 복잡하고 변화가 빠른 정보보안이슈를 따라가기 위해 정보보안 관련 단체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중이다. 가입협회는 △ICT-ISAC Japan, △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FIRST), △Nippon CSIRT Association (Nippon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Association) 등이다.

한편 한 해의 정보 보안 리스크를 감소 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 공개(6개 대분류 20개 항목)하고 있다. 대분류는 ▲ 전체적 정보보안 조치 ▲소셜미디어 통한 정보 유출 예방 ▲클라우드 컴퓨팅 제한 ▲정보 규제 및 법안 대응 ▲e-mail 유출 예방 ▲해킹 예방 등이다.

■ (애플) Apple Privacy Policy, 사생활 보장받을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

<회사 개요> 애플

- ▶ (업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29,320.16 억 원 (2021.03 기준)
근로자 수: 147,000명
해외 계열회사 수: 27개국 지사
- ※ MSCI ESG 등급 BBB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Leader

애플은 ‘Apple Privacy Policy’을 수립하고 애플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2021년 들어서는 새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했는데, 데이터 최소화(최소한의 데이터 수집), 사용자 투명성 및 통제(사용자의 통제 권한), 온 디바이스 프로세싱(애플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보안 등 4가지 대원칙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앱 추적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추구하고, 광고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추적할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지능형 추적 방지’기능을 도입했다. 크레이그 페더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부사장은 “프라이버시는 마음의 평안, 안전함, 그리고 나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이 온전히 내 것임을 의미한다”며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고 굳게 믿으며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이러한 신념을 반영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라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애플은 MSCI ESG 등급에서 Privacy & Data Security 부문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책임 투자(Responsible Investment)

기업은 기업자산 또는 위탁 자산의 관리에 ESG요소 통합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 (노무라홀딩스) SDGs 본드 발행 * ESG 채권 전문가팀 운영

〈회사 개요〉 노무라홀딩스

- ▶ (업종) 증권, 파생상품 선물 거래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133억 92백만 엔 (2011년 3월 기준)
근로자 수: 12,839명 (2019년 6월 30일 기준)

※ MSCI ESG 등급 AA / 책임투자 Leader

ESG 투자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인지 향상을 배경으로 환경 문제나 사회 과제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 그린 본드나 소셜 본드 등(이하 'SDGs신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노무라 그룹은 이러한 투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하 채권 등 발행실적)

- ▶ 오바야시구미 그린 본드('18.10월 발행): 건설사로 첫 그린 본드를 발행. 그린 본드 자금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그린 빌딩과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의 건조 자금 등에 총당
- ▶ ANA홀딩스 그린 본드('18.10월 발행): 항공 회사 세계 최초 그린 본드
- ▶ 미츠이 부동산 그린 본드('19.9월 발행): 조달 자금은 친환경 대규모 복합빌딩인 '니혼바시 무로마치 미츠이 타워' 건설 자금을 총당. 동 시설은 고단열·고성능 유리, 전열 교환기, LED 조명,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설계 적용

■ (NOTE) UN PRI란?

- ▶ 유엔 책임투자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은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니셔티브, 금융기관의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2006년 유엔 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Kofi Annan)이 주도

〈UN PRI 6대 원칙〉

- ① 우리는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를 통합한다.
- ②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 ③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 ④ 우리는 투자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⑤ 우리는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⑥ 우리는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UN PRI 서명 기업·기관〉

현재 UN PRI 서명 기업 기관은 4,222곳

한국은 11곳(Socius, Well to Sea Investment Co., Ltd., Murex Partners, 대신경제연구소, 프랙시스 캐피탈 파트너스, VI Asset Management Korea, ESG Moneta Co., Ltd., Anda Asset Management, Who's Good, 국민연금, 서스틴베스트)

6. 건강 및 인구학적 리스크(Health and Demographic risk)

보험사는 새로운 사회 리스크를 관리하고 주요 공중 보건 및 인구통계 동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데 대해 평가 받는다.

- RISK 관리 실패 사례 -

■ (KFC) 유방암 예방 캠페인(강한 비판 여론 형성)

2010년 KFC는 유방암 퇴치를 상징하는 핑크색 버킷에 치킨을 담아 판매하면서 한 버킷마다 50센트씩 유방암단체에 기부하는 ‘Buckets for the Cure’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치킨을 튀기는 기름이 오히려 유방암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을 파는 KFC가 유방암 예방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한다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담배회사에서 폐암 치료비를 지불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KFC의 캠페인을 외면했다. 이는 기업의 상품과 캠페인 명분이 어긋나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

■ (약사) 담배산업 투자금지 선언(Tabacco-Free Finance Pledge) 채택

<회사 개요> 약사(AXA)

- ▶ (업종) 금융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305,969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120,869명
- ※ MSCI ESG 등급 AAA / 건강 및 인구학적 리스크 Leader

프랑스 보험금융그룹인 약사는 치료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 중 하나의 전략 이슈로 ‘건강위험예방(health risk prevention)’을 들고 있다. 보험회사로서 위험 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약사는 담배 등의 유해섹터 투자배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6년 담배없는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장려한 금융기관의 리더십인 ‘담배산업 투자금지 선언(Tabacco-Free Finance Pledge)’을 채택하고 서명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약사는 이와 함께 담배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2016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배산업에 대한 주식과 채권 17억 유로를 전량 매각하기로 발표했다. 흡연으로 매년 약 600만 명이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 담배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이상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 약사가 담배산업 투자를 중단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에서 담배회사에 대한 투자중단을 발표한 최초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약사는 MSCI ESG 등급에서 “Health and Demographic Risk” 부문 우수등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III. 이해관계자 관계(Stakeholder Opposition)

1. 분쟁광물(Controversial sourcing)

기업은 분쟁 지역에서 조달한 원자재의 구매량과 의존도, 원자재 추적 및 인증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 RISK 관리 실패 사례 -

■ (네슬레) 유아식 마케팅 보이콧(1970s)

1970년대 네슬레는 아프리카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는 구시대적이고 불편하다고 선전하며 대신 간편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분유를 선택할 것을 광고했다. 회사의 마케팅 사원에게 의사 가운을 입혀 모유를 먹이면 아기에게 에이즈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분유를 먹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분유 제조 방법이나 적정 용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여성들은 좀 더 오랫동안 분유를 먹일 수 있도록 물의 양을 더 넣어 급여함으로써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오염된 물에 분유를 타 먹이는 바람에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기도 했다. 이는 분말로 된 이유식을 오염된 물에 타서 소독도 되지 않은 우유병에 담아 아이들에 먹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설사, 이질, 전염병,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에 언론은 네슬레 분유에 '유아 살상제'라는 별명을 붙였다.

■ (삼성전자) 책임광물 관리정책

〈회사 개요〉 삼성전자

- ▶ (업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66,311,191 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103,685명
- ※ MSCI ESG 등급 A / 분쟁광물 Leader
- ※ KCGS ESG 환경 A

삼성전자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광물 채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을 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제품에 함유된 탄탈륨 및 주석,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과 코발트와 같은 책임광물에 대한 관리정책과 체계를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채굴되는 분쟁광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분쟁광물 미사용(conflict-free)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모든 협력회사에도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부품 및 원재료에 분쟁과 고위험지역에서 불법 채굴된 광물을 제거·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책임광물과 관련된 리스크는 CRO(Chief Risk Officer)를 겸직하는 CFO 산하 상생협력센터가 주관해 관리하며, 각 사업부 내 책임광물운영위원을 통해 사업부 및 협력회사의 책임광물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리스크 관리 운영체계 내 유관부서인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커뮤니케이션팀, 컴플라이언스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새로 확인되는 책임광물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해관계자와 함께 RBA 산하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EPRM(European Partnership for Responsible Mineral) 등 협의체에 참여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OECD Due Diligence Guidance 기반의 삼성전자 광물 실사 프로세스



■ (네슬레) 네스카페 플랜 캠페인

<회사 개요> 네슬레

- ▶ (업종) 식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64,814 억 원(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352,000명 (2019)
- ※ MSCI ESG 등급 AA

스위스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는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네슬레는 2010년부터 네스카페 플랜 캠페인을 통해 영세 커피 농장의 농부들에게 커피 재배와 생산 기술을 교육하면서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왔다. 또 초콜릿의 주재료인 코코아가 무분별하게 경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나의 코코아 농가 8만 5천여 곳에 코코아와 임목 종자를 함께 보급해 산림을 보호하면서 농가의 경제적 이익도 보장했다. 또 주요 제품들의 성분 중에서 당류를 20년 전에 대비해 1/3로 줄이는 동시에 전 제품군에서 6천 톤이 넘는 나트륨을 줄여 소비자 건강을 고려하고 있다.

■ (인텔) 책임있는 광물 조달 정책(Responsible Minerals Sourcing Policy)

〈회사 개요〉 인텔

- ▶ (업종)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890,798.48억 원 (20. 12. 26 연간)
근로자 수: 110,600명
- ※ MSCI ESG 등급 AA / 윤리적 원료 조달 Leader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은 전자업계의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광물을 다량 사용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분쟁국,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주변 국가의 광산에서 채굴한 3TG를 자사 공급망 내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인텔은 전체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광물을 책임 있게 조달하기 위해 관련 노력의 범위를 확장했다. 인텔의 이러한 ‘책임있는 광물 조달 정책’은 반도체 광물조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텔은 MSCI ESG 등급 평가에서, Controversial Sourcing 부문 우수등급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Dodd-Frank Act 1502조의 취지에 따라 글로벌 NGO ‘책임있는 자원 네트워크(RSN: Responsible Sourcing Network)’가 매년 작성발간하는 ‘Mining the Disclosures’에서 2019년 2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쟁광물 관리 평가결과에서도, 인텔은 91.5점으로 유일하게 탁월(Superior)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 (Google/Alphabet) 투명한 원자재 조달 프로그램 및 자체 평가 실시

〈회사 개요〉 Google/Alphabet

- ▶ (업종)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091,759.42 억 원(21. 12. 31 연간)
근로자 수: 135301명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Supplier Code of Conduct를 바탕으로 자가평가(self-assessment),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및 3자 업체로부터의 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소비자 기기 및 데이터센터 장비의 원자재 조달 및 추출과 관련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기타 고위험 지역에서 무력 충돌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광산 지역에서만 광물(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을 조달함. 투명성 개선 및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원자재 조달 개발을 위해 2012년에 Conflict Minerals program을 시작하여 전자 산업 및 여러 국가들의 정부 조직 및 NGO와 협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분쟁 없는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의 400개 회원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련소와 정유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제3자 감사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Google과 연계된 제련소 또는 정제소 100%가 미국 2010년 Dodd-Frank 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국가에서 공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 (Acer) Acer's Policy on Responsible Minerals Sourcing

<회사 개요> Acer

- ▶ (업종) 컴퓨터 장비, 저장장치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89,546억 원 (2019. 12. 31 연간)
근로자 수: 7,240명
- ※ MSCI ESG 등급 AA / 분쟁광물 Leader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에이서는 수년동안 콩고 민주 공화국 (DRC)의 분쟁 광물 문제로 시작된 책임있는 광물 소싱에 주력하고 있다. 공급업체에도 책임감있는 사업체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구 전자산업시민연대)의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서는 Mining the Disclosures의 2019년 첫 평가에서 76.6점으로 아시아 기업 중 9위로 우수(Strong) 등급에 포함되었고, MSCI ESG 등급에서 Controversial Sourcing 부문 우수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지역사회 관계(Community Relations)

기업은 지역사회 관계 관리, 인권 정책, 지역 사회 환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 (Rio Tinto)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회사 개요〉 Rio Tinto

- ▶ (업종) 광산 및 자원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13,160.3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47,474명

※ MSCI ESG 등급 A / 건강 및 안전, 기업지배구조, 유독물질 배출 및 폐기물 Leader / 기업윤리, 공동체, 물부족, 생물다양성 및 토양, 인적자원 관리, 탄소배출 Average

Rio Tinto의 사업 특성상 대부분 원주민이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토지 위 또는 근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산 채굴 사업을 진행하기 전, 오래 기간에 걸쳐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와 원주민 조직과 협력하여 채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역 사회의 문화 유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광산 개발 또는 절차 진행 중에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간 중에서 지역 사회, 정부 및 종교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몽골 Oyu Tolgoi 지역에서는 문화 유산 관리를 위한 서약을 체결하고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CHMS)을 구축하여 유형 및 무형 문화재 관리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했다. 2020년 5월, 자연재래로 인하여 서호주 Juukan Gorge 지역의 암석 보호소 2개가 파괴된 사건 이후 문화 유산 예방 차원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구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보상, 철저한 모니터링 이행, 의회(parliament) 조사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IV. 사회적 기회

1. 통신망 접근성(Access to Communications)

기업들은 개발도상국 및 서비스가 부족한 시장(예: 농촌, 노인)에서 통신망 및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받는다.

■ (아디다스) 디지털 고충처리 ‘Workers Voice’ 플랫폼 구축

<회사 개요> 아디다스

- ▶ (업종) 스포츠 용품 제조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59,775.28 억 원 (2021. 12. 30 연간)
근로자 수: 62,285명

※ MSCI ESG 등급 AAA / 제품탄소발자국, 기업지배구조, 원재료 조달 Leader / 인적자원 관리, 협력업체 근로자 정책, 화학적 안전성, 기업윤리 Average

아디다스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장 기반 디지털 고충처리 채널/메커니즘이자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운영되는 ‘Workers Voice’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사용되던 ‘핫라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운영 및 사용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갔으며, 2020년에는 전 세계 12개국, 111개 공장에 고용된 45만 명의 근로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COVID-19 기간 동안 디지털 기반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중요성 및 활용도가 더욱 증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약 46,000건의 인권 및 노동 권리에 관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Workers Voice’ 플랫폼을 이용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및 고용자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KPI와 대시보드 검토, 만족도 등급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전반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주요 사례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나아가,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업장 내 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역량 구축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휴렛 팩커드 Enterprise) 교육 및 의료시설에 Aruba 솔루션을 활용한 HPE 연결 키트 제공

〈회사 개요〉 Hewlett Packard Enterprise

- ▶ (업종) 컴퓨터, 전화 및 가전제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50,838.75 (20. 10. 31)
근로자 수: 53000명

※ MSCI ESG 등급 AA / 인적자원관리 Leader 협력업체 근로자 정책 Average

HPE는 Wi-Fi 네트워크 범위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제품인 Aruba를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선 및 전염병 극복을 위한 HPE 연결 키트(connectivity kit)를 제공함. HPE 연결 키트는 주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개선이 필요한 교육 및 의료 기관에 배포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 10월 사이 전 세계 28개국 약 1,600개 기관을 위해 2,600만 달러에 달하는 키트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병원 및 클리닉 센터에서는 기존 Wi-Fi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었고, 학교, 도서관 및 기타 공공시설에서는 이 키트를 사용하여 건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주차장이나 운동장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Aruba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 액세스 범위 확대 및 지원을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 Grandi Navi Veloci(페리 운영 해운회사)를 지원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페리를 임시 수상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되어 4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 남부 Arkansas주의 Bentonville City Schools에 Aruba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약 18,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1,200명의 교사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금융 접근성(Access to Finance)

기업은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가 부족한 시장까지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받고 있다.

■ (페이팔) Social Innovation Strategy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회사 개요> 페이팔

- ▶ (업종)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46,656.64 억 원(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21,800명
- ※ MSCI ESG 등급 A / 금융 접근성 Leader

간편결제口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Paypal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고, 금융건전성을 촉진하며, 기부를 촉진하는 글로벌 미션을 담은 사회혁신전략(Social Innovation Strategy)을 수립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인 PayPal Ventures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 외곽지역 소기업들에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하는 Buy from the Bush (BFTB) program을 통해 가뭄, 산불 지역 여성기업의 97%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PayPal Working Capital과 PayPal Business Loans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중소기업청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를 통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휴대폰 앱 자금이체 서비스인 Venmo를 통해서도 터치프리방식 결제수단을 15백만 소상공인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새로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Generosity Network를 통한 기부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한 페이팔의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MSCI ESG 등급에서 금융접근성 부문 우수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 (유니레버) 소매업체 신용·금융서비스 접근성 지원

<회사 개요> 유니레버

- ▶ (업종) 개인, 가정 용품 및 서비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84,322.63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149,000

유니레버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소매 업체들이 신용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 재정 관리 및 경제적 리스크/충격에 대한 회복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용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2018년에 Mastercard와 협력하여 전략적 이니셔티브이자 디지털 자본 플랫폼인 'Jaza Duka("fill up your store")'을 구축함. Jaza Duka는 혁신적인 기술, 목표 지향 교육 및 유통 네트워크 관계의 강점을 결합하여 소매업체가 현금 기반 비즈니스의 제약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제품 구매 및 상품 판매, 소규모 소매 업체가 단기 자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약 20,000개 이상의 소매 업체가 등록했으며 이 중 54%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3. 의료 접근성(Access to Health Care)

기업들은 의약품의 공정한 가격 책정, 특허 및 역량 향상과 제품 기부, 개발도상국 및 서비스 부족 시장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받는다.

■ (아스트라제네카) Access and affordability programmes고

〈회사 개요〉 아스트라제네카

- ▶ (업종) 제약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4,488.90억 원 (2021.06.30. 분기)
근로자 수: 76,100명
- ※ MSCI ESG 등급 AA / 의료 접근성 Leader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의료솔루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헬스케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줄이며, 의약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Access and affordability programmes”을 제공하고 있다. Patient Assistance Programmes (PAPs)중 하나로 약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AZ & Me Prescription Saving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건강보험, 거주상태, 가계소득, 복용하는 약을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최대 90일 분량의 약품이 우편으로 환자에게 발송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브라질에서 환자에게 의약품 할인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Faz Be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기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기부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노력으로 MSCI ESG 등급에서 헬스케어 접근성 부문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 (Eni) COVID19 관련 의료 접근성 증진사업

〈회사 개요〉 Eni

- ▶ (업종) 오일 및 가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95,618.21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31,495명
- ※ MSCI ESG 등급 A / 탄소배출, 공동체 Leader

Eni는 COVID-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 병원인 ‘Policlinico Gemelli’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 전용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약 3주간의 기간을 걸쳐 기존의 종합병원을 바이러스 감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 병원으로 전환하였고 약250개의 입원 병상과 60여개의 COVID 전용 병상을 만들었음. 이를 계기로 해당 지역에서 수천 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치료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COVID-19 비상 사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보건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구축했다. 특히, 'Policlinico Gemelli'와 협력하여 'COVID 전용 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중환자실에 필요한 최신 장비 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증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진단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역 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휴렛 팩커드 Ent.) 소외계층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

<회사 개요> Hewlett Packard Enterprise

- ▶ (업종) 컴퓨터, 전화 및 가전제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50,838.75 (20. 10. 31)
근로자 수: 53000명
- ※ MSCI ESG 등급 AA

HPE의 기술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Hopebound'와 협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Hopebound는 중·고등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 건강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치료 상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정신 건강 임상 의들과 협력하여 Atlanta, Georgia, Newark, New Jersey 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면 치료 세션 등을 제공하는 가상 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두 번째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 영양 및 보건 기회(Opportunities in Nutrition&Health)

기업은 자사 식품의 영양성분과 영양 밸런스를 갖춘 제품 개발 노력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 (Knorr) 건강 및 웰빙 식단 레시피 개발 및 도서 발매

〈회사 개요〉 Knorr

- ▶ (업종) 식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5,018억 원 (2019. 12. 31 연간)
근로자 수: 28,452명 (2018년)

Knorr은 유니레버가 인수한 가장 큰 식품 회사로 영양가 있는 식품과 지속가능한 식단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WWF-UK)와 함께 사람과 지구에게 이로운 50가지 음식 레시피로 구성된 ‘Knorr’s Future 50 Foods’를 개발했다.

Knorr이 개발한 The Future 50 Foods는 사람들이 음식의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지속가능하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정한 재료로, 전 세계 90개국, 200여명의 Knorr셰프가 모여 약 1,000개 이상의 ‘Knorr’s Future 50 Foods’ 레시피를 개발했다. 관련 레시피는 Knor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요리 도서로도 제작되어 판매 수익은 WWF-UK로 전달함. 사람들이 일상 생활 속에 Future 50 Food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멕시코, 필리핀, 영국, 나이지리아, 케냐,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WWF 뿐만 아니라 Chefs 'Manifesto, Gro Intelligence, Food for Climate League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식물성 재료를 기반으로 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 (펩시코) Food for Good program

<회사 개요> PepsiCo

- ▶ (업종) 음료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21,091.59억 원 (2021.06.12. 분기)
근로자 수: 69,100명
- ※ MSCI ESG 등급 AA / 영양 및 보건 기회 Leader

PepsiCo는 전 세계 지역 사회의 식량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에 Food For Good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방과 후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다. 이후 COVID-19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폐쇄로 영향을 받게 된 미국 전역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Food For Good은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및 Baylor University Collaborative on Hunger and Poverty (BCHP)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농촌 지역의 난민 아동들에게 2주 분량의 상온 보관용 개별 포장 영양 식품을 제공했다. 또 2020년 3월부터 연말까지 Alaska에서 Puerto Rico에 해당하는 전 지역 사회에 1,800만개 이상의 포장 식품 배송을 완료했다.

나아가 COVID-19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PepsiCo India는 인도 내 소외된 지역 사회에 1,000만개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 왔으며, 여러 정부 연구기관 및 병원에 35,000개 이상의 COVID-19 테스트 키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Global FoodBanking Network, Save the Children, Un Kilo de Ayuda, Dividendo Voluntario Para la Comunidad/United Way Worldwide 그리고 Rise Against Hunger 등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어 700만 명 이상의 지역사회 어린이 및 가족들에게 식사와 기부금 등을 지원했다.

■ (켈로그) 더 나은 내일(Kellogg® Better Days) 캠페인

<회사 개요> 켈로그

- ▶ (업종) 식품 및 담배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41,255.42억 원 (2021.04.03. 분기)
근로자 수: 31,000명
- ※ MSCI ESG 등급 AAA / 영양 및 보건 기회 Leader

1906년 설립된 미국의 다국적 식품기업인 켈로그는 식물성 식품을 통해 100년 이상의 전문지식을 사용해 식품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웰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6월 차세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더 나은 내일(Kellogg® Better Days)'을 발표해 식량 안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2030년까지 30억 명의 사람들과 지역사회, 지구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캠페인은 '허트 앤 소울 전략(Heart & Soul strategy)'하에 10억명의 결식 예방, 3억 7500백만명에게 식량기부,

여성농업인과 소농가 등 1백만명의 농부 지원, 책임감 있는 원료 공급, 음식물 쓰레기 절감, 재활용 가능한 패키지 공급, 직원들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SCI ESG 등급 AAA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영양 및 보건기회 부문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 (Tesco) 건강, 안전, 웰빙 인식 제고 프로그램

〈회사 개요〉 TESCO

- ▶ (업종) 유통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841,025.30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423,092명
- ※ MSCI ESG 등급 AA / 영양 및 보건 기회 Leader

Tesco는 직원들의 안전 및 복지뿐만 아니라 매장 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 등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위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British Heart Foundation, Cancer Research UK 그리고 Diabetes UK 등 다양한 자선 단체들과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정신 건강/웰빙을 위해 2016년부터 고용주들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서약(employer's mental health pledge)에 서명하고 정신 건강 캠페인 'Time to Change(정신 건강에 관한 오명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07년에 시작된 영국의 정신 건강 캠페인)'를 지지하고 있다. 정신 건강 자선단체인 Mind와 협력하여 모든 매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서비스 및 리소스 등을 제공하고, 2019년에는 Samaritans와 공동으로 소매업을 위한 웰빙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

거버넌스 편

I.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의 오너십, 이사회 및 보상 관행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1. 이사회 (Board)

(1) 글로벌 ESG 평가사, 자산운용사, 의결권 자문사 등이 요구하는 이사회 기능

■ E&S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E&S 요소가 투자대상 회사의 기업지배구조(G)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ESG 평가기관들도 이사회 E&S 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능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ESG 평가기관의 '이사회 E&S 감시' 평가 방법]

	MSCI	ISS	Sustainalytics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정책(EMS & Environmental Policy)		•환경경영시스템(EMS) 담당자가 CEO,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의한 환경정책 승인
기후변화 정책 (Climate Policy)	•사업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중요한 사업 리스크로 인정	•이사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risk와 기회 감시	
다양성 (Diversity)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 비율	•이사회 및 근로관계에서의 다양성·평등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이행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경영진 또는 이사회 차원에서의 책임
인권 (Human Rights)		•회사의 인권경영정책 실행에 책임이 있는 이사 지정	
반부패 (Anti-Bribery & Anti-Corruption)		•회사의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위층 경영진 차원에서의 관리	
건강 및 안전 (Health & Safety)	•ESG위원회와 리스크 관리 책임자 등에 의한 H&S전략 수립과 이행	•Health & Safety 전략과 성과가 Sustainability Committee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과 Vanguard의 투자대상 회사 이사회에 대한 요구

BlackRock은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중요한 ESG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사회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이사들의 재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2021년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이사회 역할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 이사회 건전성(board quality): 주주와 소통하기 위한 선임 사외이사(lead independent director) 선임.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key stakeholder interests): 회사가 주요 이해관계인들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회사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활동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사과정(duediligence processes)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등.
- 다양성·평등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 DEI): 이사회 및 근로관계에서의 DEI 강화는 이사회 효율성, 사업의 지속성, 혁신, 장기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한 초석이므로 투자대상 회사가 속한 국가와 시장에서의 DEI에 대한 best practice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인권 리스크 관리(Human Rights Risk Management): 기업운영 전반 및 공급망, 협력사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 이슈를 확인하고 이러한 이슈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인권정책, 공급망의 윤리강령, 괴롭힘 방지 정책, 정보보호 정책 등)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들의 위반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부정 효과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적절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

BlackRock은 투자대상 회사가 산업안전보건(OH&S) risk관리를 실패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사의 재선임을 모두 반대한 바 있다('21.1.6). 세계 최대 장갑생산업체인 Top Glove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 COVID-19 발생으로 수 천명이 감염되고, 한 명이 사망하였는데 주주인 BlackRock은 회사의 이사회가 COVID-19에 취약한 근로환경으로 부터 초래될 근로자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6명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하였다.

Vanguard는 '다양성'이 확보된 이사회가 주주의 장기적 가치창출을 위한 판단을 더욱 잘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이러한 이사회 다양성(board diversity)은 2021년 뱅가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주주활동의 대상이고 이러한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의 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이사회 다양성 요구는 모든 회사들에게 획일된 이사회 구조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별 투자대상 회사가 속한 나라의 상황과 회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회 구조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뱅크드는 또한 투자대상 회사 근로자들의 다양성·평등성·포용성(diversity·equity·inclusion: DEI) 과 같은 인적자본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이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 브랜드 손상, 근로자의 잦은 이직, 소송제기 등으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사회에 인적자본(supply chain 포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Glass Lewis의 이사회 기능 관련 의결권행사 기준 강화

(ISS) 기존 IS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risk oversight)를 심각하게 소홀히 한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2021년 개정에서 “risk oversight”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과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명백한 관리 실패”를 포함시킴으로써 이사회 E&S리스크 관리감독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가이드라인 개정).

(Glass Lewis) 모든 나라의 회사에 적용되는 ESG Initiatives 가이드라인을 2021년 개정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대기업을 이사회가 E&S 이슈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전반을 검토하여 어느 이사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E&S 이슈 감시에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 WEF(World Economic Forum)가 제시한 ESG 관련 이사회 아젠다

세계경제포럼(WEF)은 COVID-19를 극복하고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과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ESG 요소를 회사의 핵심 전략과 운영,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 전반에 통합(integrated)하고 내재화(internalized)하는 ‘통합 지배구조(Integrated Corporate Governance)’ 달성을 위해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6대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 ① 회사의 전략수립과 자본할당이 장기적 가치창출 목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 ② 중요한 ESG 요소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체계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금융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와 쇼크(systemic risks and shocks)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 ④ 회사가 기업활동과정에서 인권과 공정한 시장,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제도들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함.
- ⑤ 비재무적 요소(ESG)가 재무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양자를 통합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⑥ 이사회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ESG 리스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해당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회사 전체의 목적, 전략, 리스크 관리와 일치되도록 전체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합하여야 함.

■ CCGG가 제시한 E&S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 실행 지침

CCGG(Canadian Coalition for Good Governance)는 E&S를 G에 통합시키는 ‘통합지배구조(Integrated Corporate Governance)’, 즉 E&S risk 가 기업의 전략(strategy)과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실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가 경영진의 E&S risk 관리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와 실무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리스크 관리

전사적리스크 관리(ERM)체계 내에서 E&S risk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E&S요소를 회사의 장기 전략 및 리스크 관리에 통합해야 함.

E&S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침을 전달하고 효율적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정책과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이 협력업체 들에게도 확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사의 승인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E&S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검토해야 함.

경영진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체계 운용, E&S 리스크 중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선별하기 위한 중요성 평가 등을 이사회가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략

기업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또는 기업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E&S 요소들은 기업의 장기전략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이를 감시해야 하고 E&S 요소가 기업의 전략목표에 반영되는 것이 기업의 비전 및 전략 계획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전략이 ESG요소를 포섭해 나가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매년 개최해야 한다.

성과지표

이사회는 적절한 측정 기준 및 목표치를 사용해 E&S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성과를 감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정착과 같은 질적 개선이 보상위원회의 보상결정 메커니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E&S의 중요성이 보상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보상위원회와 E&S 위원회 사이에 충분한 교류와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E&S 지표와 성과목표가 회사의 장기 전략과 주주가치에 초점을 맞추며 조정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사회가 E&S목표에 대비되는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Ceres(지속가능협회)가 제시한 이사회의 ESG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이사회가 ESG 이슈로 인해 초래되는 risk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ESG Risk 확인
ESG risk가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ESG risk를 찾아낼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 중요한 ESG risk를 확정하기 위해 경쟁업체에서의 ESG관리, 주주 및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 별로 ESG risk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확인된 ESG risk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ESG Risk 평가
확인된 ESG risk중 회사의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risk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scenario analysis)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된 ESG risk가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한다.
ESG risk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보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ESG risk가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 논의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표출되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SG Risk 완화
주요 ESG risk가 회사의 경영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 후 이러한 risk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의 ESG risk 관리 성과가 보수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2) 이사회의 E&S 리스크 관리 사례

■ (Microsoft) 기업내 다양한 ESG 이슈를 확인하고 주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직위 신설

투자자들이 회사의 ESG리스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점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Microsoft사의 이사회는 기업내 다양한 관련 부서로부터 ESG 리스크가 통합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 비서실 (Office of Corporate Secretary) 내 ESG Engagement Director 라는 새로운 직위를 마련해 기업 내 실무팀간 협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Engagement Director는 주주들과 ESG 이슈에 대해 적극 소통하는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 활동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실적에 대해 보다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 (Nestle) ESG 요소와 회사의 재무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실시

〈회사 개요〉 네슬레
 ▶ (업종) 식품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64,814 억 원(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352,000명 (2019)
 ※ MSCI ESG 등급 AA

ESG 요소와 회사의 재무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가 (materiality assessment process) 중요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재무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와 "ESG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ESG 이슈가 회사에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자를 통합해 ESG 관련 리스크가 재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도 통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슬레 이사회는 2년 마다 회사의 대외적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중대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절차에 중대성 평가절차를 완전히 통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ESG 이슈들이 그 밖의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전사적 차원에서 고려되며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중대성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제 3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72명의 주요 이해관계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를 파악하였다.

■ (CLP Holdings) COSO의 ESG 리스크 관리 글로벌 기준에 따라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실시

〈회사 개요〉 CLP Holdings
 ▶ (업종)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17,261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83,000명
 ※ MSCI ESG 등급 A / 기업지배구조, 기업행동 Average

리스크관리 체계 속으로 ESG 리스크를 포섭해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ERM)를 구축하는 기본틀은 내부통제 국제표준을 마련해 온 COSO에서 최근 제시해 준 'Enterprise Risk Management-Applying enterprise risk management t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related risks(2018)'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ESG risk 이슈가 이사회에 보고되고 ESG risk가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포섭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구성원간 협력적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RM을 ESG risk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전반, 경영전략과 목적 등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ESG risk가 확인되고, 평가되며, 특히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어떻게 선별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가에 주목하고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절차 속으로 ESG risk를 포섭 시키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권장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CLP는 이러한 COSO 기준에 기초해 materiality assessment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시하였다. 우선 CLP에 잠재적 관련성이 있는 megatrend 조사 등을 통해 12개의 megatrend를 선별하고 각기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 분석했다. 그리고 회사내부 전략 보고서, 회사정책, 인터뷰 등을 통해 잠재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토픽 60개를 선정하고, 각각을 12개의 메가트렌드 카테고리에 배치시키고, 12개의 카테고리 토픽 중 회사의 통제가능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할 5개의 토픽을 선정해 2018년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2018년에 실시했던 중대성 평가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재조정 하였고, 2020년에는 COVID-19 등과 같은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다시 일부를 수정하였다.

■ (Delta Electronics)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ESG 이슈의 중대성 평가 실시

〈회사 개요〉 Delta Electronics
 ▶ (업종) 에너지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17,261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83,000명
 ※ MSCI ESG 등급 A / 기업지배구조, 기업행동 Average

Delta Electronics Inc.의 CSR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소통(Stakeholder Communication)방법과 관련된 글로벌 기준(AA1000 Stakeholder Engagement Standard)을 적용해 6개 주요 이해관계자(근로자, 소비자, 협력업체, 투자자, 언론,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 결과로 확인된 ESG 이슈들에 대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실시해 주요 ESG 이슈를 발굴하였다. 중대성 평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Stage 1 : Identification) Shareholder Feedback, 글로벌 ESG 관련 standards , ESG Rating, 회사의 경영목적 등을 참조하여 20개의 ESG issues 발굴

(Stage 2: Analysis) 20여개의 ESG issues중 ‘이해당사자에 대한 중요도’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11개의 Material Issues를 선정, 이사회에 보고 및 확정

(Stage 3: Impact) 11개의 Material Issues가 회사의 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 마련

■ (Stora Enso) ESG 이슈를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속으로 통합

<회사 개요> Stora Enso

- ▶ (업종) 제지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8,557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24,455명
- ※ MSCI ESG 등급 AA / 기업지배구조 LEADER

2014년, Stora Enso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아동노동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로는 이사회 차원에서부터 아래로는 모든 협력업체들을 포함해 전사적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ESG 이슈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시스템 속으로 통합하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ESG 관련 경험을 가진 수석부사장이 ESG 이슈가 포함된 ERM 시스템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CEO에게 관련사항을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ESG 이슈가 ERM을 포함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 속에서 상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사회 산하 Sustainability and Ethics Committee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 실행과 윤리 및 준법 전략을 감시하고 있다.

■ (Jones Lang LaSalle) ESG 이슈를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속으로 통합

<회사 개요> Jones Lang LaSalle

- ▶ (업종) 부동산 운영 관리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08,515.20 억 원 (2019. 12. 31 연간)
근로자 수: 91,000명 (2020)

Jones Lang LaSalle (JLL) 은 중대한 ESG 리스크를 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체계는 CEO와 CFO가 포함된 Global Executive Board (GEB) 가 관리하며, 법무 부서에 속해 있는 ERM 관리자가 실무적으로 조정한다. 주요 ESG리스크는 분기마다 GEB에 보고되고,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된다. ERM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는 감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Greif)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속에서 ESG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개편

<회사 개요> Greif

- ▶ (업종) 용기 및 포장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2,351.43 억 원 (2021. 10. 31 연간)
근로자 수: 16,000명 (2020)

Greif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시스템을 통해 회사 전반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 Greif의 ‘Risk and Content Monitoring processes’를 통해 리스크가 확인되고 분석되는데 이러한 절차에는

정기적인 소비자 및 투자자들과의 대화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반영되고 Sustainability Steering Committee (SSC)가 적극적 역할을 한다. SSC는 회사에 영향을 미칠 ESG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ESG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ESG 등급관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ESG 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SSC가 취합한 ESG 관련 정보는 Risk Leader Committee (RLC)에 제공된다. RLC는 chief audit executive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 업무 책임자를 포함해 다양한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RLC는 감사위원회와 함께 발생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그리고 주요 리스크는 분기마다 이사회 승인을 위해 보고된다.

■ (Walmart) Global Compliance Program 구축을 통한 이사회 ESG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회사 개요〉 월마트

- ▶ (업종) 식품 및 약품소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483,355.85 억 원 (2021. 1. 31 연간)
근로자 수: 2,300,000명 (2020)
- ※ MSCI ESG 등급 기업지배구조 Average

2013년,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하청업체가 밀집한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붕괴로 11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이러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던 Walmart는 ESG 이슈를 기존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통합한 Global Compliance Program 체계를 구축했다.

Walmart의 compliance program에서는 14개의 ESG 관련 이슈들을 포섭하고 있고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법과 글로벌 기준들의 준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Compliance program은 Global 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CECO)가 총괄하고 CECO가 부회장 등에게 보고된다. compliance program은 이사회에서 감시 감독 되는데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매년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와 경영개발위원회가 컴플라이언스 목적을 설정하고 이사회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실무부서에 역할과 책임을 배분해 준다. 그리고 compliance leader와 그 밖의 고위 경영진들로 구성된 ‘Ethics, Compliance, and Risk Committee’를 만들어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련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 (Ericsson) 전사적 리스크 관리시스템(ERM)체계 속에서 ESG 리스크 관리

<회사 개요> Ericsson

- ▶ (업종) 통신 장비 제조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19,390 억 원 (2021. 12. 31. 연간)
근로자 수: 100,824명
- ※ MSCI ESG 등급 AA

Ericsson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ERM)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전략 설정 및 실행을 통합하여 그룹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SG관련 리스크도 이러한 ERM framework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다.



▲ Ericsson의 ESG 프레임워크

[Ericsson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ERM)]

	MSCI
지배구조 및 문화 (Governance &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문화, 전략적 의사 결정, 리스크와 내부통제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하여 ERM 전략을 실행 • Group Risk Management function 조직은 그룹 차원에서의 ERM 전략 실행 및 운영을 주도. • Market area와 Business area의 책임자는 각 영역에서의 ERM을 감독해야 하며, 각 영역 내에서의 위험 관리를 주도할 1인 이상의 Risk manager 임명 • CFO는 ERM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ERM 체계와 운영, 효과 등을 검토.
전략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관리는 전략적 의사 결정 및 가치 창출에 중요한 요소 • 리스크 관리 활동은 기업의 사업계획 및 전략 개발 등과 밀접하게 연관
평가 및 처리 (Assessment & Trea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ning): 부서별 risk 관리 책임자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risk 관리 계획 마련 • 리스트 확인 및 분석(Risk Identification and Risk Analysis): 시장영역, 사

	<p>업영역 및 그룹기능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상향식 위험 식별 프로세스 단계 (Bottom up Risk Identification)를 통해 식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Risk Management function 조직은 상향식 위험 식별 프로세스 단계(Top down risk identification)를 통해 고위 경영진 및 외부전문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직면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 • 위험 분석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식별된 위험이 4가지 측면에서의 리스크 (financial risk, strategic risk,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 reputational risk)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요도에 따른 Heat Map 작성 •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용(accept), 회피(avoid), 추구(pursue), 감소(reduce)등의 대응방안 강구
<p>소통 및 보고 (Communication & Repor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간 리스크 관련 정보를 공유 • 그룹간 ERM framework 및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치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룹 리스크 협의회(Group Risk Council)를 설치하고, 모든 리스크 관리자들이 참석하며 그룹 리스크 관리 책임자(head of group risk management)가 의장직 수행 • 각 계열사의 리스크를 그룹 전체 차원에서 조정하고 이 중 그룹 차원에서 주요한 리스크를 선정하기 위해 Group Risk Management function 조직에 1년에 1회 이상 보고
<p>감시(Monitor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Risk Management function 조직은 ERM 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특히 Ericsson은 인권(Human rights) 관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UN의 인권경영 원칙, 즉 ①실제적, 잠재적 인권영향을 평가 ②평가 결과를 경영에 통합하고 실행 ③경영에서 실행한 것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는지를 추적 ④ 기업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 공개 등을 잘 준수하고 있고, CHRB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의 인권경영 평가(2020)에서 ICT 분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미국 판례) ESG 리스크 관리 실패를 이유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인정 (Marchand v. Barnhill (Del. 2019))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미국의 Blue Bell의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 원인균의 하나인 listeria균이 발생해 이를 소비한 일부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제품의 대량 리콜 및 공장폐쇄, 상당수 근로자의 해고 등이 초래됨에 따라 주주들이 이사들의 신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들은 Blue Bell이 관련법 및 FDA 규제를 모두 준수했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했으며, 경영자들이 ‘운영 이슈(operation issues)’ 전반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이사회와 함께 회사의 일반적 운영에 대해 논의해 왔으므로 이사들은 신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Blue Bell이 ‘이사회 수준(at the board level)’에서 ‘직접’ 식품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하였

다. Blue Bell 이사회는 식품안전을 특별히 감시하기 위한 어떠한 위원회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이사회 전체 차원에서 식품안전 이슈를 특별히 다루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사회 자체가 회사 경영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Blue Bell의 경우에는 public health(공중위생)와 관련된 Social risk)을 감독하기 위한 어떠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영진으로부터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사항을 보고받는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동 판결이 선고된 이후 미국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회사운영에 필수적인(Mission-Critical) 사안과 관련된 E&S리스크 파악
- 이사회 차원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위험 내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 절차 및 행동 강령(Protocol) 마련
- 산업별 필수 규정준수 및 위험을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계획 수립
- 경영진이 이사회에 사업에 필요한 필수 사항을 보고(공개) 하도록 함
- 회사 사업과 관련한 익명 보고 시스템 구축
- ESG 전문가 영입 또는 이사 교육실시
- 이사회 내 토론, 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결의, 이사회 회의록 등, 이사회 의 활동과 노력을 모두 문서화할 것

(3)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사례

■ (Bank of America) 별도의 ESG 담당 위원회를 신설해 사내 ESG 정책 수행

〈회사 개요〉 Bank of America

- ▶ (업종) 은행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26,157 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213,000명 (2020)
- ※ MSCI ESG 등급 A / 기업지배구조, 기업행동 Average

Bank of America는 회사의 ESG Policy 인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Policy Framework” 실행과 감독을 다양한 사업부분을 아우르는 경영진 레벨(management-level)에 있는 ESG Committee에서 수행하고, ESG 이슈에 대한 전반적 관리와 책임은 이사회 차원의 ‘Corporate Governance, ESG, and Sustainability Committee’ 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E&S risk에 대해서는 ESG Committee가 경영진 레벨인 Management Risk Committee에 보고하고, 여기서 이사회 차원의 Enterprise Risk Committee에 보고되어 관리되고 있다. ‘Enterprise Risk Committee’의 구성원은 ‘Corporate Governance, ESG, and Sustainability Committee’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 (Nike) 위원회 설치를 통해 ESG 이슈에 대한 비난 극복

〈회사 개요〉 Nike

- ▶ (업종) 섬유 및 의류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16,195.42 억 원(2021. 5. 31 연간)
근로자 수: 75,400명 (2020)
- ※ MSCI ESG 등급 A / 기업지배구조 Average

과거 임금 착취, 강제적 초과근무, 권한남용 등으로 비난을 받았던 Nike가 ‘기업 책임, 지속성 및 지배구조 위원회(Corporate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 Governance Committee)’를 신설하여 E&S 이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회사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내재화되도록 하며 사업활동과 연계된 주요 ESG 이슈가 상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ESG 이슈와 회사 경영전략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연계성이 회사의 개별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고위 임원들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으며 지속가능성과 사업전략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치되며 조정되는지를 검토하고,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략이 주요 사업 결정 내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Snam, Gap) ESG위원회와 타 위원회 간 상시 소통 시스템

<회사 개요> Snam (이탈리아)

- ▶ (업종) 에너지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35,533 억 원(2019. 12. 31 연간)
근로자 수: 3,025명 (2019)
- ※ MSCI ESG 등급 AA / 기업지배구조 Average

<회사 개요> Gap

- ▶ (업종) 전문품 상점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9,693 억 원(2021. 1. 30 연간)
근로자 수: 117,000명 (2020년)

ESG 리스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회 위원회는 일반적인 리스크를 감독하는 위원회와 역할의 조정 및 협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이사회 차원에서 ESG 리스크가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ESG 리스크 감시와 관련해 개별 위원회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탈리아 회사 Snam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ESG(Sustainability) 위원회와 협조하여 ESG 리스크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속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p Inc 은 '지속가능성'을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 위원회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Committee)'의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는 이사회 의장과 보상위원회, 감사 및 재무 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ESG 리스크를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임원 보상(Pay)

기업은 급여 및 기타 인센티브 관행과 기업 전략 간의 균형에 대해 평가된다.

■ (Nestlé, Barclay, Xcel Energy) ESG성과와 경영진 보수 연계

〈회사 개요〉 네슬레

- ▶ (업종) 식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064,814 억 원(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352,000명 (2019)
- ※ MSCI ESG 등급 AA

기업의 보상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행동과 성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성과와 목표달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S 요소를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내생변수로 통합해 온 기업들은 적절한 E&S지표와 타깃을 회사 구성원들의 보상체계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많은 회사의 이사회들은 이러한 보상체계를 회사의 구성원들이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도록 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Xcel Energy 이사회는 경영진 보수의 일부를 3년간 평균 CO2 배출량 26% 감소 달성과 연계시키고 있다. Barclay 이사회는 경영자 보수의 일부를 E&S채권발행 확대, 녹색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달성과 연계시키고 있다. Nestlé 도 경영진의 단기 보너스 구조를 혁신해 2021년부터는 보너스의 15%를 ESG 관련 목표달성(Key Performance Indicator)와 연계시키고 있다.

3. 회 계(Accounting)

기업은 감사 및 재무 공시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평가된다.

■ (월드컴) 분식회계로 파산

미국 통신회사 월드컴의 CEO 버나드 에버스는 2001~2002년 CFO 스콧 설리번과 함께 현금흐름표를 조작하고 매 분기마다 영업경비를 자본계정으로 옮기는 등의 110억달러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단행했다. 이는 이미 통신사업이 과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MCI라는 통신회사를 인수한 후 매출이 급감하고, CEO 개인의 재정문제가 겹친 결과이다. 2002년 2월 미국 SEC의 월드컴 내사가 시작되고, 월드컴도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재정상태를 조사하면서 이러한 분식회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SEC는 CEO, CFO, 부사장을 기소해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중 CEO인 버나드 에버스는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월드컴은 2002년 7월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고, 회사 이름을 MCI로 변경한 후 통신회사 버라이즌에 인수되었다. 월드컴의 파산규모는 자산기준 1,070억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고 있다.

II. 기업행동(Corporate Behavior)

기업은 부정행위, 경영층의 위법행위, 부패행위, 돈 세탁 또는 반독점법 위반과 같은 기업 윤리 문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1. 기업윤리(Business Ethics)

■ (Cisco) 윤리 사무국(Ethics Office) 설치 · 운영

<회사 개요> CISCO Systems, Inc.

- ▶ (업종) 유,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 및 개발 서비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조2800억 원 (2021 회계연도 4분기)
근로자 수: 77,500명

※ MSCI ESG 등급 AA / 기업지배구조, 기업행동

Cisco는 기업 윤리 의식이 기반이 된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객, 정부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올바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구로써 ‘비즈니스 행동 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 COBC)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로부터 기업 윤리 정책 및 행동 강령에 관한 우려사항, 방향성 등을 빠르게 소통하고 수집 및 보고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부서인 Cisco’s Ethics Office를 설치하였다. Ethics Office에서는 NAVEX Global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Ethics Webform’이라는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 윤리적으로 문제 된 위법 행동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을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 다국어로 제공되는 EthicsLine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EMEX) ‘ETHOSline’ 소통채널 및 기업 윤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회사 개요> CEMEX

- ▶ (업종) 건설 및 기계 지자재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조1600억 원(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41,000명 (2020년 기준)

CEMEX는 기업과 직원들간의 소통 채널로써 직원들의 의견과 우려사항 등을 수렴할 수 있는 ETHOSline을 설치하였다. 또한, 더 많은 직원들이 걱정없이 ETHOSline을 활용할 수 있도록 ETHOSline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CEMEX의 윤리 강령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한 해 동안 412개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회사

의 윤리적 가치, 정책 및 절차 등을 홍보하고 위반 행위 및 사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2020년에 ETHOSline으로 접수된 사례 총 620건 중 514건이 종결되었고, 사실로 확인된 174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66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269건의 징계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이슈는 ‘인적 자원, 다양성 및 직장 내 존중(52%)’이었으며, ‘비즈니스 통합(26%)’, ‘환경, 건강 및 안전(14%)’, ‘기업자산의 오용/유용(8%)’ 등으로 나타났다.

또 CEMEX는 기업 윤리, 인권, 준법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약 26,000명의 직원과 1,400명의 외부 참가자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참가하였다.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전염병 및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해상충, 사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ETHOS Do the Right Thing에도 6,0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조직 윤리 및 규정 준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소니) 24시간 27개 국어 기업윤리 관련 신고 핫라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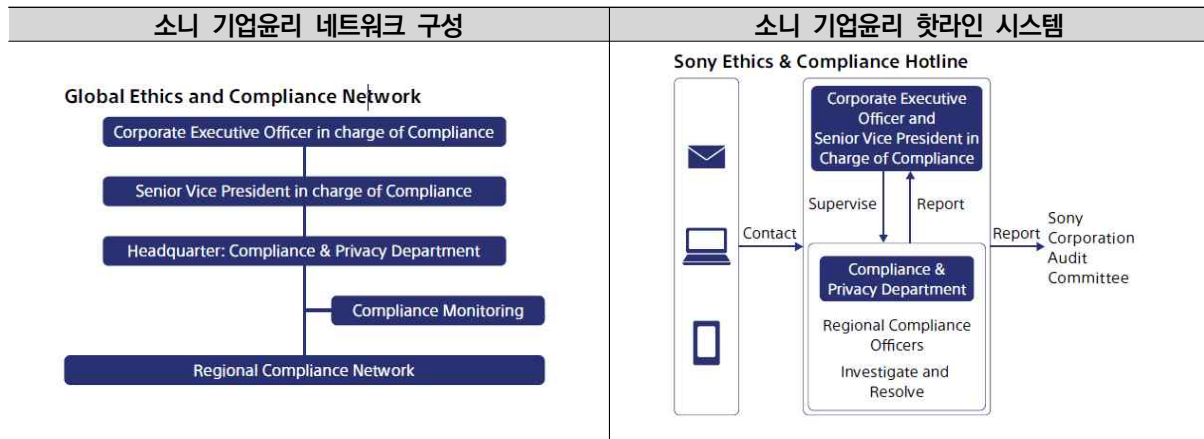
〈회사 개요〉 소니

- ▶ (업종) 컴퓨터, 전화 및 가전제품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940,820.09억 원 (2021.03.31. 연간)
근로자 수: 114,400
해외 계열회사 수: 60개
- ※ MSCI ESG 등급 AAA / 기업행동 Leader

소니는 MSCI ESG 평가의 Corporate Behavior 항목에서 우수(Leaders) 등급을 받았다. 소니는 Ethics and Compliance Hotline란 기업윤리 위반 관련 신고접수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운영하며 27개 국어로 통화 가능하여 소니의 글로벌 지사 어디에서든 신고가 가능하

다. 핫라인은 스태프는 특수 훈련을 마친 소니와 무관한 제 3자 용역 업체로 구성, 모든 통화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익명 보안 처리, 녹음되거나 추적되지 않는다. 2019년 핫라인을 통한 신고접수 건수는 440건이었고 이 가운데 39%는 실제 조사가 착수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다.(신고의 73%는 고용, 다양성 및 직장 내 상호존중에 관한 내용) 신고 결과 및 통계는 상부 경영층과 감사위원회에 보고된다.

또 소니는 전 세계 그룹사 차원의 Ethics and Compliance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CEO가 네트워크의 총 책임자로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 프레임워크 정비, △법 준수 현황 모니터링, △필요한 지원 제공,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한다.



소니는 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윤리교육 프로그램(Ethics and Compliance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직원과 협력사는 고용시점 혹은 서비스 제공시점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90일 내에 수료해야 한다. 주요 트레이닝 항목(Key Compliance Trainings)으로는 △뇌물수수금지 교육, △경제제한 조치 준수, △반독점 및 공정경쟁, △수출입 제도 준수, △정보 보안 등이 있다.

2. 반경쟁(Anti-competitive) 관행

■ (CEMEX) 글로벌 독점 금지 정책(Global Antitrust Compliance Policy) 제정

〈회사 개요〉 CEMEX

- ▶ (업종) 건설 및 기계 지사재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5조1600억 원(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41,000명 (2020년 기준)

CEMEX는 기업 내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행동 강령 준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업 윤리에 관한 정책들을 개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CEMEX의 행동강령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간의 관계를 관리하며, 독점 금지 규정(antitrust compliance) 준수, 뇌물 금지(anti-bribery), 자금 세탁 방지(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반경쟁 또는 반독점 금지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CEMEX의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무 및 비재부적 주제를 통합하여 진행한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에서 ‘Highest Materiality’(아래 그림 8번 ‘Pricing integrity and anti-trust compliance’)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CEMEX는 글로벌 기준을 바탕으로 반경쟁/반독점 금지 정책인 ‘Global Antitrust Compliance Policy’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Eni) 반독점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회사 개요> Eni

- ▶ (업종) 오일 및 가스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95,618.21억 원 (2020.12.31. 연간)
근로자 수: 31,495명
- ※ MSCI ESG 등급 A

Eni가 윤리강령에서 “충성도 및 공정성 있는 시장 활동 (We operate in the market with loyalty and fairness,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을 강조한 바와 같이 Eni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competition law, also known as "antitrust laws")을 준수하고 있다. Eni는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독점금지법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이에 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으로 ‘독점금지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Antitrust Management System Guideline, MSG)’을 제정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에는 MSG의 내용을 개정하여 기존의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Antitrust Compliance Programme)’을 강화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업의 독점금지 규정 준수 방법 및 평가, 주기적 분석 및 감독 등을 수행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MSG | Antitrust

INDEX

1. INTRODUCTION	4
1.1 Objectives of the document	4
1.2 Area of application	4
1.3 Implementation modalities	4
2. DEFINITIONS, ABBREVIATIONS AND ACRONYMS	5
3. ANTITRUST COMPLIANCE	6
3.1 Antitrust Legislation as a fundamental value and an integral part of Eni's corporate culture	6
3.2 Eni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6
3.3 The role of the Antitrust Unit	6
4. STRUCTURE OF THE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8
4.1 Prevention	8
4.2 Monitoring	9
4.3 Acting against improper conduct	10
5. THE MAIN RULES OF ANTITRUST LEGISLATION	11
5.1 Regulatory References	11
5.2 Prohibited conduct	11
5.3 Other conduct which requires consultation with the Antitrust Unit	15
5.4 Conduct which requires the prior authorization of competent Antitrust Authorities	16
5.5 Relations with the Antitrust Authorities	18

3. 세금 투명성(Tax Transparency)

기업은 추정 법인세 격차(Corporate Tax Gap, 추정 실효세율과 추정 법인소득세율 간 격차), 수익 공시 투명성 및 세무 관련 비위에 대해 평가 받는다.

실패사례

■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조세회피

미국 소프트웨어 1위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료를 받는 페이퍼컴퍼니인 마이크로소프트 라운드 아일랜드 원을 자회사로 두고있다. 해당 회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로펌 회사 사무실을 주소지로 하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 카리브 해의 버뮤다에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다. 미국 상원은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 라운드 아일랜드 원 등 아일랜드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일랜드 조사 후 거대첨단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해외 조세회피처로 이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선두주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상원 재무위원회의 조사상설소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990년대부터 국제 영업과 조세 회피를 위해 연관된 해외 법인체들의 복잡한 망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SCI ESG 등급에서 최고등급AAA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세회피로 인한 세금투명성의 결여로 Corporate Behavior에서는 미흡등급(Laggard)으로 평가받고 있다.

■ (KT) 세금 정책 및 투명한 공시

〈회사 개요〉 KT

- ▶ (업종) 통신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239,166.7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22,123명

※ KCGS ESG 등급 A+ / 지배구조 A+

KT는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책임있는 조세 원칙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금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KT 전세계 모든 사업지에서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조세규정을 준수한다. 전자공시시스템내 감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이연법인세 및 유효세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공개된다. 특히 회계상 자산, 부채와 세무상 자산, 부채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 항목별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어떠한 불법적인 조세 회피 및 세법 상의 불법행위, 허위 신고 등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납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세금 정책은 KT 국내외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 및 자회사, 당사가 출자한 합작 법인에 해당된다. 또한 KT는 사업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파트너사,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정책의 엄정한 준수를 기대하고 있다.

4. 부패(및 불안정성)

실패사례

■ (골드만삭스) 해외부패방지법 연루 사건

<회사 개요> Goldman Sachs

- ▶ (업종) 투자은행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659,306.70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40,500명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설립한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 1MDB가 공적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미국 골드만삭스도 부패스캔들에 연루된 것이 밝혀졌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부터 5년간 제3중개인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아부다비 고위 관료에게 16억 달러 가량의 뇌물을 제공하고, 2012년~2013년 1MDB의 채권발행을 대행해 6억달러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골드만삭스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사업전반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부서도 존재했지만, 골드만삭스내 고위임원이 부정행위를 행하고 은폐해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2020년 10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미 법무부 형사벌금 23억달러, 미 SEC 민사벌금 4억달러, 추징금 6억 680만 달러로 총 33억달러에 달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최대규모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에 벌금 29억달러, 영국 싱가포르 홍콩에 합의금 6억달러도 지급해야 한다. 골드만삭스는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전현직 경영진의 급여 1억 7,400만달러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골드만삭스의 MSCI ESG 등급은 BBB이며 특히 Corporate Behavior 부문에서 미흡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 (Microsoft) 반부패 정책 및 컴플라이언스 분석 프로그램 운영

<회사 개요> Microsoft

- ▶ (업종)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
- ▶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3조9000억 원 (2021회계연도 4분기)
근로자 수: 182,268 명

Microsoft는 부패 및 뇌물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기 위해 반부패 관련 기준 및 정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뇌물 방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37001을 바탕으로 기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반부패 정책을 제정하여 공무원, 정부 또는 관계 직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요구하거나 수락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Microsoft는 부패 방지 프로그램(Anti-corruption training)을 통해 직원들의 윤리적 의사 결정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Standards of Business 과정, 반부패 워크샵, 역할 대상 훈련/교육(role-targeted training) 등과 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 또는 제3자가 기업의 부패 및 뇌물 관련 위반 행위나 우려사항 등을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익명을 보장한 hotline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부패 위험에 관한 사전/조기 경고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분석 프로그램(Compliance Analytic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분석 프로그램은 고급 통계, 기계 학습 및 인공 지능을 활용한 온프레미스(on-premise: 기업이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자체 설비로 보유하고 운영)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투자하여 개발된 것으로 Microsoft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패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거래처를 식별, 검토하고 이러한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하고자 하며,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 (코카콜라) 반부패 관련 정책 및 ‘부패 방지 카드’ 제공

〈회사 개요〉 코카콜라
 (업종) 음료
 (일반) 최근 기준 매출: 11조7800억 원 (2021 회계연도 2분기)
 근로자 수: 86,200명
 ※ MSCI ESG 등급 AA/ 기업행동 Average

CocaCola Company는 2015년~2017년 사이, 기업의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식별하고자 전 세계 18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3가지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하였다. ‘공급망을 통한 부패 리스크(Corruption & anti-bribery risks through value chain)’는 13가지 주요 인권 이슈 중 하나로, CocaCola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부패’ 관련 이슈는 해결하기 쉽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방지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CocaCola는 공급업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적용될 비즈니스 행동 강령 및 반부패/뇌물 방지 정책을 제정하였고(2020년 6월 10일 개정), 웹 기반 및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보고, 모니터링 및 인증 시스템 등이 포함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CocaCola는 직원들에게 ‘정부 및 공무원 대상 소통 방법/교육’과 ‘반부패 전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공급업체를 선별하여 당사의 반부패 정책 준수 동의서를 받기 위한 글로벌 실사 프로그램(global due diligence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

부패에 관한 무관용 정책 이행 사례: 미얀마에서 교통 경찰이나 도로 교통 지자체가 CocaCola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CocaCola는 운전 기사들에게 부패에 관한 무관용 선언 내용을 명시한 ‘부패방지 카드(anti-corruption card)’를 제공하였다. 이 카드에는 ‘CocaCola에 고용된 모든 운전자는 어떠한 형태의 뇌물 또는 지원금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으로 반드시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영어와 버마어로 명시되어 있다. 이후, 운전자들은 뇌물 요구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즉시 반부패 카드를 제시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들의 뇌물 요구 사례가 뚜렷하게 감소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5.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Financial system instability)

실패사례

■ (모건스탠리) 데이터센터 해체작업 감독 소홀

〈회사 개요〉 모건스탠리
 (업종) 투자은행
 (일반) 최근 기준 매출: 563,506억 원 (2020. 12. 31 연간)
 근로자 수: 68,097명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16년 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일환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데이터센터 해체작업 진행 과정에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미국 통화감독국은 2020년 10월 모건스탠리의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 6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구체적 사유는 모건스탠리가 하드웨어 해체와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못했고, 제3자 벤더 이용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했으며, 장비들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제대로 유지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제3자 벤더 선정 시 적절한 실사(DD)를 하지않고 이들의 성과모니터링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2019년에도 모건스탠리는 WAAS(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의 폐기와 관련해 유사한 벤더관리문제가 있었지만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모건스탠리 고객 100여명이 은행이 개인식별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이름, 고객번호, 계좌번호, 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자산관련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는 MSCI ESG 등급이 AA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파괴 및 삭제절차 감독실패를 비롯한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으로 Corporate Behavior 부문에서는 미흡등급(Laggard)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움 주신 분들



신석훈 위원
감장 법률 사무소
(02) 3703-4742



‘황형준 변호사
감장 법률사무소
(02) 3703-1546



김혜성 변호사
감장 법률사무소
(02) 3703-1421



김혜성 변호사
감장 법률사무소
(02) 3703-1805

송재형 ESG T/F 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02) 3771-0328

임지은 ESG T/F 책임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02) 3771-0162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KIM & CHANG



전국경제인연합회·김앤장